

#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8 OCTOBER 2009







# ECONET WAY

공동 함께 하는 행복인 있다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8 OCTOBER 2009

발행인 이병훈 Publisher Bill Lee  
발행처 남양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편집 김민선 Editor Minsun Kim  
디자인 디자인모루 Design by Design MORU  
인쇄 정광인쇄(주)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 Cover Story

에코넷웨이는 저기 너머 마을과 마을을 이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ECONET WAY is going forward, connecting one village to another beyond.

# ECO

- 04 자연오감 The Sense of Nature
- 06 웰니스 칼럼 Wellness Column
- 10 자연의 선물 The Gifts of Nature
- 12 이음이 전하는 자연의 맛  
Bringing the Tastes of Nature to Your Table

# NET

- 14 특별 보고 Special Report
- 20 현장스케치 ❶ On the Scene
- 24 현장스케치 ❷ On the Scene
- 28 현장스케치 ❸ On the Scene
- 34 성공이야기 Success Life
- 36 나의 소중한 사람 My Precious Person

# WAY

- 38 청강열전 Biography of Lee, Yunho
- 40 에코넷 글마당 ❶ Literary Space
- 44 에코넷 글마당 ❷ Literary Space
- 46 행복여행 ❶ Happy Trails
- 50 행복여행 ❷ Happy Trails
- 54 사진콘테스트 Photo Contest
- 56 에코넷 뉴스 ECONET NEWS
- 62 함께해요 Let's Do it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命)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南國)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중에서



Lord: it is time. The summer was immense.  
Let thine shadows upon the sundials fall,  
and unleash the winds upon the open fields.

Command the last fruits into fullness;  
give them just two more ripe, southern days,  
urge them into completion and press  
the last bit of sweetness into the heavy wine.

- Excerpted from Autumn Day, written by Reiner Maria Rilke



# 일상의 간단한 변화

## Making Simple Changes in Everyday Life

**편집자 주** 에코넷 웨스트에서는 7월7일부터 8월7일까지 30일간 에어로빅 챌린지를 열었다. 임직원들에게 운동할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열린 에어로빅 챌린지에서 에코넷 웨스트 임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에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했는지 경합했다. 그 결과 유니베라 미국의 브리지 헨닝스 재고관리관이 2,900시간으로 유니베라 미국 내에서 1등, 전체에서 2등을 차지했다. 여기 그 내용을 소개한다.

사내에 에어로빅 대회가 공지되었을 때, 나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확고한 동기와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이점이 있었던 만큼 자신이 있었다. 특별한 물품을 구입했다거나 체력에 한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몇 년 전 결심한 후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 전 나와 남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 습관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우리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생활에 익숙한 터였다. 우리가 하는 운동이란 고작 집 주변으로 개를 산책시키는 것과,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뿐이었다.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냈고, 그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앓는 일이 잦았고, 우리 두 사람 모두 항상 의욕이 없고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뒤, 집에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모두 내다 버리고 테니스 신발을 장만했다.

물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 나이키에서 신발

*Editor's word* ECONET West had an aerobic challenge from July 7<sup>th</sup> to August 7<sup>th</sup>, for 30 days. The challenge aimed at providing chance to exercise, and in this competition employees from ECONET West vied with one another for how much time they put in exercise. The winner was Breezee Hennings in Operations team at Univera USA who spent 2,900 hours in exercise. She came out the first in Univera USA, and the second in the entire competition. Here is a story about her.

When the ECONET 30 Day Aerobic Challenge was announced, I was ready to compete. I understood that it would take motivation and energy, but I was optimistic because I believed I had an advantage. It wasn't due to anything that I bought or because I possessed limitless energy--no it was because of a decision I had made several years ago that resulted in a vigorous routine of exercise already in place.

Three years ago my husband an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best way to good health for us was through balanced eating habits and an active lifestyle. At the time we were living a sedentary life. The most exercise we would get was walking our dogs around the block or carrying our glass for recycling down our 1/4 mile driveway. Suffice to say, our exercise routine was non-existent and we felt the effects of it. I was often sick, we felt lethargic and had a general feeling of apathy. So upon making this resolution, we threw away all of our junk food and bought tennis shoes.

Of course, this complete adjustment didn't happen as easily as a simple purchase at Nike but took gradual changes in our everyday affairs. I really had to rethink how and why I made certain choices. For instance, before I would drive





한 걸레를 사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았다. 생활 전체를 바꾸어야 했다. 일상의 간단한 선택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야 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도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행동을 멈추고 생각한다. “마트에서 살 물건이 많지 않으면, 걸어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또는 “지금 걷기 시작하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활습관이 변화하면서 운동량이 늘어나고, 동행이 있을 경우에는 좋은 대화 기회도 생겼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자동차를 적게 쓰면서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기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얻은 또 다른 이점은 예전과 달리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었고 조용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차로 이동하게 되면 교통 체증에, 음악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 여유가 생기니 카약, 등산, 걷기 등 북서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매우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고,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한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본 운동 외에도, 매일 필라테스를 한 시간씩 하고 있고 직장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걷고 있다. 이것은 매우 기본 좋은 일이다. 여름날 아침에는 나를 잠에서 깨우는 상쾌한 아침 산책을 할 수 있고, 때때로 길가에서 토끼가 이슬이 맺힌 풀잎을 먹는 광경을 볼 수도 있고, 아침 나절 새들의 행복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바로 등산이다. 노스 다코타 주의 대평원에서 자란 나는, 워싱턴으로 이사했을 때 올림픽 산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참으로 장엄하



to my destination without pause of thought even if it was within walking distance. Now, I would stop to think, “If I am only getting a few items, could I walk to the grocery store and carry it home?” or “If I left now, could I walk to the movie theater and get there before the movie starts?” This change in my routine not only allowed for physical activity and good conversation if I was with someone, but had the added bonus of helping the environment by not driving my car. This seemingly small change significantly added to my peace of mind and health.

Another benefit of this one change was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really slow down my day and allow time for reflection and silence. When you are in the car constantly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fill up your mind whether it is traffic, music or a radio show. Additionally, I started to take advantage of the many different outdoor activities available in the Northwest such as kayaking, hiking, and trail walking.

On a different note, I will admit that I am awfully competitive in nature and the thought of losing wasn't something I liked to dwell on. So in addition to my normal exercise routine which gave me a solid foundation to start on, I did Pilates for an hour every day, and I took the bus to work which lead to an additional 60 minutes of walking per day. This was a nice treat because it was summertime and I got to start the morning off with a pleasant walk to wake me up and often I would see a bunny nibbling on the dewed soaked grass and the birds would always be singing their happy tune. I took this time as a way to de-stress and to ensure that I would walk into work ready to tackle my tasks.

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이었다. 여름에는 한 달에 최소한 산 하나는 오르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타운젠드 산이나 씨이 산과 같이 집에서 가까운 산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오를 산이 너무나 많다. 최근에는 러니어 산을 올랐는데, 워싱턴 주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며 높이가 4,392m나 된다. 나는 1,829m까지만 올라갔는데도 그 길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가장 험난한 코스였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서 장엄한 러니어 산의 장관을 보는 것은 맘을 흔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사진은 카우츠 크릭 등산로에서 약 일 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찍은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하루였다. 야생화가 피어 있고 나비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목초지를 따라 걸으며, 러니어 산의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체력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날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을 것 아니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3년 반 전에 등산을 시도했다면,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뿐더러 체력이 모자라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무기력한 생활에서 활동적인 생활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한 것은 쉬운 일이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인생의 만족과 건강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이다. 나는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함으로써 몸을 해치는 여러 질병과 질환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상 생활에 간단히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심신의 안정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건강한 신체, 조용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기에 더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글 | 브리즈 헨닝스 재고관리관 | 물류팀 | 유니베라 미국

I do want to mention my favorite means of exercise though, which is hiking. Growing up in the flat prairie land of North Dakota, I was captivated with the beautiful Olympic Mountains when I moved to Washington. They are so majestic and awe-inspiring. Hiking at least one mountain a month in the summertime became my goal. I started off with hikes in my area like Mt. Townsend and Mt. Si and there are still many more to go. Just recently I hiked Mt. Rainier. This is Washington's most famous mountain. It stands at a staggering 14,410 feet. The trail I did only went up to 6000 feet but it was one of the hardest hikes I have ever done. However the reward of seeing the regal Mount Rainier up close was worth the struggle.

The picture of me that is enclosed in this article was taken just a mile off of Kautz Creek Trail. It was one of the most peaceful and serene days of my life. While strolling along the rolling meadows filled with wild flowers and butterflies and gazing at the sun setting on Mt. Rainier, my hiking partner said to me, “We should really be thankful that we have health and that we are fit enough to experience this because there is no way we could just get off the couch and do this hike.” I nodded in agreement. If I would have tried to do this hike 3 1/2 years ago, I wouldn't have made it and probably would've injured myself because my body wouldn't have been strong enough.

Making the choice to change my lifestyle from a sedentary one to an active one was the easy part. Actually finding the time and the energy was the hard part. My motivation comes from the fact that I can control, to a certain extent, my health and my satisfaction with life. I have the power to prevent numerous diseases and ailments that could afflict my body and all I have to do is put forth the effort to exercise. Just making simple changes in my everyday life has added peace of mind, a positive outlook on the future, a healthier body, time for reflection and also has enabled me to do a small part in helping the environment.

By Breezee Hennings Inventory Control Specialist | Operations | Univera USA





# 밀크씨슬 Milk Thistle

평소 술자리가 잦은 사람, 늘 피곤한 사람이라면 지금 소개하는 ‘밀크씨슬(Milk Thistle)’, 그러니까 ‘큰엉경귀’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밀크씨슬의 학명은 *Silybum marianum L.* 이다. 국화과이며, 주요 원산지는 남서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이다. 옛날부터 모유가 부족한 어머니들이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밀크씨슬 다린 차를 마셨다. 지중해 연안에서 2000년 이상 애용한 밀크씨슬은 성모 마리아의 젖이라는 재미있는 전설도 갖고 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밀크씨슬의 잎에 대리석 모양이 생긴 이유는 성모 마리아가 젖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밀크씨슬은 알코올의 중화와 해독 그리고 간질환 완화에 효과가 탁월하다. 밀크씨슬의 주요성분인 실리마린의 항산화력은 비타민E의 10배에 달하며, 초기 알코올성 간질환에 개선 효과가 있다. 죽은 간세포의 효소 (AST, ALT 혹은 GOT, GPT)가 혈액에 흘러 들어가면 간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간수치를 낮추는 영양소가 바로 실리마린이다.

알코올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높은 칼로리를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는 이때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저장한다. 잦은 음주로 인해 이와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될 경우 간은 지방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정상보다 커지게 되는데, 지방이 축적된 이런 간을 지방간이라고 부른다.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알코올을 분해할 때 나타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체내에 해로운 독성물질로 해독 과정에서 간에 무리를 주기 쉽다.

밀크씨슬은 간의 중요한 해독 성분이면서 항산화제의 하나인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 결핍을 예방하여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밀크씨슬이 간 기능을 향상시켜 체내의 해독 과정을 원활히 하기 때문이다.

에코넷도 이미 밀크씨슬을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유니베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남양931’의 원료 중 하나가 바로 밀크씨슬이다. 술자리가 생기면, 가기 전에 ‘남양931’을 복용하는 에코네시안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까, 아닐까.

글 | 김종한 선임연구원 | 천연물연구팀 | 유니젠

If you are a heavy drinker and feel tired all the time, you should be interested in the plant called Milk Thistle.

Milk Thistle’s scientific name is *Silybum marianum L.*. It is a flowering plant in Asteraceae family and native to the Mediterranean regions of Europe, North Africa and Asia. Breastfeeding mothers used to drink Milk Thistle tea to increase mother’s milk. The plant has been used for more than 2000 years around Mediterranean area, and has an interesting nickname of “Mary’s milk.” Mediterranean people believed that Mary’s milk fell to the leaves of Milk Thistle and made the white marble-like mottles.

Milk Thistle is known for its effectiveness to neutralize alcohol and treat liver diseases. Its main constituent, Silymarin is strong antioxidant which is ten times as effective as vitamin E, and is reported to cure liver diseases of initial stage. Liver enzymes (AST, ALT or GOT, GPT) in blood are related with liver function, and *Silymarin* decreases liver enzymes in blood and improves liver’s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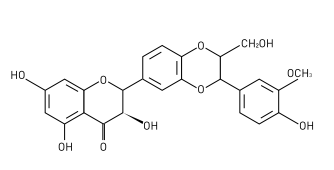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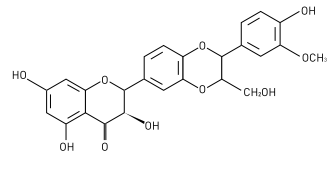
When Alcohol breaks down, it emits high calories. Human body transforms it into triglyceride and stores it in liver. Frequent drinking makes this process happen repetitively, and the liver’s function of breaking down fat goes out of order, and the liver swells. When the fat in liver accumulated above normal level, it is called fatty liver. If it is left untreated, it can cause more serious diseases in liver. Also, when body breaks down alcohol, a toxic chemical called Acetaldehyde comes out from the process. The liver might be damaged in the process of neutraliz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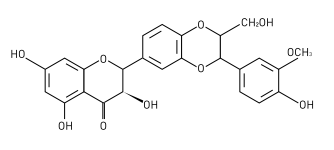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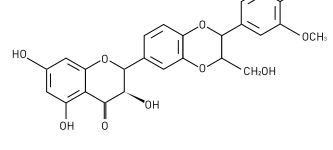
Milk Thistle increases glutathione, an antioxidant that helps liver’s detoxifying function. It also prevents lack of glutathione and helps restoration and regeneration of liver cells damaged by alcohol intake because it helps liver’s function and stimulates detoxifying process.

ECONET is already using Milk Thistle producing its product. One of the ingredients of “*Namyang 931*” sold by Univera Korea is Milk Thistle. Wise ECONETians who drinks frequently would better be aware of the fact. Do you know that?

By Jong-Han Kim Senior Researcher | Natural Product Team | Unigen

## 실리마린 구조 및 특성 Structure and attributes of Silymarin

	실리빈 Silybin	이소실리빈 Isosilybin
		
분자식 Molecular formula	C <sub>28</sub> H <sub>42</sub> O <sub>10</sub>	C <sub>28</sub> H <sub>42</sub> O <sub>10</sub>
분자량 Molecular weight	482.4	482.4
성상 form	흰색분말 White powder	흰색분말 White powder
	실리크리스틴 Silychristin	실리디아닌 Silydianin

	
분자식 Molecular formula	C <sub>28</sub> H <sub>42</sub> O <sub>10</sub>
분자량 Molecular weight	482.4
성상 form	밝은 노란색 Bright yellow

유니젠 한국 연구실 입구에 전시한 동서양의 천연물들.  
Natural products in display at the entrance of Unigen Korea Lab.





## 발렌시아 지방의 빠에야 Paella alla Valenciana

글 | 박경진 | 이음 대표 By Kyungjin Park | Eum F&B

이번 호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스페인 전통요리를 소개한다.

빠에야는 스페인 전통의 지중해식 요리로 온 가족이 함께 하기에 좋은 음식이다.

주재료인 쌀을 야채, 해산물과 함께 볶는다. 자극적인 맛보다는 향을 중시하는 음식으로

샤프란이 첨가되어 노란빛과 독특한 향이 난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을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

쌀이 주재료이고 마늘과 양파 등이 많이 들어간 덕분에 한국인 입맛에도 비교적 잘 맞는 편이다.

빠에야는 원래 볶음밥을 하는, 손잡이가 달린 둥글고 얇은 프라이팬에서 유래했다.

전통적인 빠에야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장작불을 피우고 1미터가 넘는 원형 그릇에

돼지고기, 소고기 등과 밥을 넣어서 볶아먹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가을에 가족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행복하게 나누어 먹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Paella* is a traditional Spanish dish made of rice which is perfect for family gathering.

It usually contains cooked vegetable, seafood and stir-fried rice.

It is full of flavor rather than taste.

Its yellow color and distinctive flavor comes from saffron.

Chopped chicken or pork may be added to the dish.

Koreans usually like this dish because it is made of rice, and contains lots of garlic and onion.

The name of *Paella* came from a round and thin frying pan that

Spanish use to make stir-fried rice. Traditionally, farmers working on the field built a fire and fried pork, beef and rice in a giant round pan over one meter.

A sizzling pan of *Paella* would provide a happy moment for family to share in autumn.

### ● 조리과정 Cooking directions

❶ 피망을 불에 태워 껍질을 벗긴 후 사각형으로 잘라둔다.

❷ 닭고기는 오븐에 구워 익히고, 돼지고기는 후라이팬에 구워 잘라두고, 살라미는 슬라이스한다.

❸ 끓는 물에 새우를 삶아 껍질을 벗겨 준비하고, 홍합은 반은 껍질을 제거하고 반은 껍질째로 둔다.

조개는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주꾸미와 문어, 갑오징어도 데쳐서 먹기 좋은 모양으로 잘라 준비한다.

맛조개와 모시조개도 삶아둔다. 가재는 잘게 잘라 끓는 물에 데쳐둔다.

❹ 냄비에 양파와 마늘과 월계수 잎을 넣고 오일을 넣은 후에 잘 볶는다.

여기에 사각으로 썬 피망을 넣고 볶은 후에 화이트 와인을 첨가하고 토마토와 샤프란, 고춧가루를 첨가하여

조금 더 익히다 쌀을 넣고 야채스톡을 넣어 익힌 후, 준비된 해물을 모두 넣어 익힌다.

❺ 쌀이 다 익으면 접시에 담고 그 위에 고기로 장식을 한다.

❶ Grill red bell pepper and skin, chop it into a bite size

❷ Bake chicken in oven, fry pork in frying pan, slice salamis.

❸ Boil prawns in hot water and skin them. Scrub and shell half the sea mussels.

Boil and shell clams, and boil and chop webfoot octopus, octopus and squid into bite size.

Chop lobsters to small bits and boil it slightly in hot water.

❹ Put onion, garlic, laurel leaves, add some olive oil and stir-fry it.

Add red bell peppers, white wine, tomato, saffron, red pepper powder and heat it until softened.

Add rice and vegetable stock. Add rest of the seafood in the fan and leave it to simmer.

❺ Simmer until rice is cooked, put it on the dish, and garnish it with meat.

“자연과 사람을 잇는다”고 하여 ‘이음’입니다. “Eum” means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kind.

### ● 재료(4인 기준) ingredients(4 servings)

야채스톡 적당량

쌀 400g

마늘 20g

양파 80g

월계수잎 1개

고춧가루 적당량

샤프란 적당량

레몬즙 적당량

홍 피망 30g

토마토 20g

완두콩 40g

화이트 와인 10ml

살라미 (매운 것) 40g

닭고기 80g

돼지안심 80g

홍합 60g

모시조개 60g

새우 60g

가재 80g

왕새우 4마리

갑오징어 40g

주꾸미 40g

문어 40g

맛조개 40g

A little of Vegetable stock

400g of Rice

20g of Garlic

80g of Onion

One of Laurel leaf

some of Red pepper

a pinch of Saffron

a spoonful of Lemon juice

30g of Red bell pepper

20g of Tomato

40g of Green peas

10ml of White wine

40g of Salami (Spicy flavor)

80g of Chicken

80g of Pork

60g of Mussel

60g of Short-necked clam

60g of Prawn

80g of Lobster

4 King prawns

40g of Squid

40g of Webfoot octopus

40g of Octopus

40g of clams



# 에코넷, 그 섬김과 나눔의 길

## ECONET, the Road to Serving and Sharing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과 사회를 사랑하게 되며 이러한 구성원들이 모일 때  
기업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됩니다.

-고(故) 청강 이연호 회장

Once people who love the other people and the society gathered in a company,  
then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mpany shall be beloved by the country and the society.

- Late Chairman Lee, Yunho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에코넷을 설립한 고(故) 이연호 회장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김과 나눔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함으로써 사람과 세상을 섬기고, 삶의 축복들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런 그의 삶의 자세는 우리 에코네시안들에게도 이어져 에코넷은 세상의 어느 기업보다도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도 본질적으로는 에코넷의 세상에 대한 섬김과 나눔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 에코넷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해왔는지, 설립자 고 이연호 회장이 지켜온 섬김과 나눔의 자세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에코넷 한국 3사의 CSR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글 | 최재영 부장 | 전략지원실 | 에코넷 한국 홀딩스

The late chairman Lee, Yunho's life-the founder of ECONET-can be simplified in two words; serving and sharing. He served his neighborhood and the world in the way that he had brought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and he shared with the world the blessings given to him throughout his life. We, ECONETians, are endowed with his lifelong mission. ECONET is a company most devoted to deliver services to community. We believe that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he same concept in essence as ECONET's principle of serving and sharing. This article will look into ECONET's CSR activities based on our principl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how we picked up what Lee, Yunho had left and his spirit of serving and sharing. ECONET companies located in Korea-Univera, Naturetech and Unigen-are representing the mission.

By Jae Young Choi General Manager | Strategic support team | ECONET Korea Holdings

유니젠  
Unigen

## 낮은 곳으로 향하는 따뜻한 시선 Humble serving the unfortunate with warm heart

유니젠 한국이 위치한 병천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회사 주변에는 농사를 생업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다. 유니젠은 이러한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거시설의 청소와 환경미화, 노후 시설 교체 등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지원 이외에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외롭게 사는 노인들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유니젠은 농촌지역 노인 생활개선을 계속 펼쳐가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Unigen Korea is located in Byeongcheon, a typical provincial area in Korea. In the vicinity of the company, there are a lot of elderly people who barely makes living by farming. The company set out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those people by cleaning the neighborhood and replacing decrepit local facilities. Apart from material support, its staffs visit the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on a regular basis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too. Unigen will continue its support for the elderly by improving environment, and also plans to expand support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community.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Washing dishes and cleaning toilets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고 있다.  
Fixing water pipes at houses of needy neighbors



생활이 어려워 고장난 전등을 갈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 새 전등을 달아주고 있다.  
Unigen employees are replacing light bulbs at houses of needy neighbors





유니베라  
Univera

## 행복을 가꾸는 사랑 나눔이 Sharing love and happiness

유니베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80년 후반부터 섬김과 나눔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세계적인 천연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남양알로에에서 유니베라로 변경한 후에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유니베라의 CSR 프로그램은 본사 임직원을 넘어 420개 대리점, 약 2만5천 명의 유니베라 가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2003년 4월 유니베라는 30여 개의 팀, 1만30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사랑 나눔이'를 창단해 자원봉사를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육영사업을 도와 문화산업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결식아동 돕기, 북한어린이 돕기, 독거노인 돕기, 대학생해외봉사단 러시아 연해주 파견(1999년~2002년)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함께 '한사랑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8년까지 총 1억5천여만 원을 모금해 '희귀, 난치병 어린이 환자'를 도왔다. 이 밖에도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을 꿈꾸는 수요음악회'를 통해 매월 시민들과 밝고 따뜻한 문화공연을 함께 하고 있다.



2009년 8월 여름 꿈나무 캠프 (진천)  
Aug, 2009- Summer camp for Children at Jincheon



2000년 6월 대학생 러시아 해외봉사  
Jun 2000- College student volunteers visit Russia

2007년 6월 세브란스 병원 환자 생일파티 Jun, 2007- Birthday party for children admitted into Severance hospital



Univera began CSR activities since the end of 1980s when the concept did not even exist. Since Univera changed its name from Namyang Aloe to expend into a global natural product company, it devoted to start CSR programs to create the happier world where humans and nature exist in harmony.

Univera's CSR program is not limited to employees of the company. Its 420 Distributors and 25,000 Univera Planners are part of the participants for the program. In April 2003, Univera started "Love messengers", a program participated by 30 teams and 13,000 volunteers to establish corporate culture of volunteering.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for bringing up human resources for the benefit of the industries comprising culture and technology. Univera provided its products without any charge to the badly off neighbors, and launched various CSR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lunches to poor children, helping starving children in North Korea, supporting elderly people living alone, dispatching college student volunteers to Maritime Territory of Siberia in Russia (1999-2002). Also Univera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Hansarang(Great Love) Sharing Campaign" in association with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raised 150 million Korean Won which was used for the children who suffered from rare and/or incurable diseases. As a part of Mecenat activity, currently Univera holds "Wednesday concert in nature" to provide the neighborhood with cultural experience on a monthly basis.



2004년 10월 난치병 환자 돕기 세브란스 마라톤  
Oct, 2004- Marathon day held by Severance hospital for patients with intractable diseases



2009년 7월 수요음악회  
July, 2009- Wednesday Concert  
2009년 1월 대리점장세미나 대리점 사랑나눔이 시상식  
Jan, 2009- Awardees of "Sharing love" award at the heads of distributors' seminar



네이처텍  
Naturetech

## 함께 나누는 사랑 Sharing love

네이처텍은 2008년부터 본격적인 CSR활동을 시작하였다. 2011년까지 4년 동안 실행 로드맵(Road Map)을 준비하고 2011년에 대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사회공헌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CSR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네이처텍은 '네이처텍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을 총 5개조로 나누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지역 내 조손가정의 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푸드뱅크(Food Bank) 배달지원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네이처텍은 2010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조손가정 지원과 푸드뱅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을 네이처텍의 대표적인 기업문화로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조손가정집의 청소를 돕고 있는 네이처텍 임직원들  
Naturetech employees who are helping cleaning houses  
of grandparent-child families.  
완성된 화장실  
New toilet

네이처텍 임직원들이 담장을 보수하고 있다. Naturetech employees are repairing a f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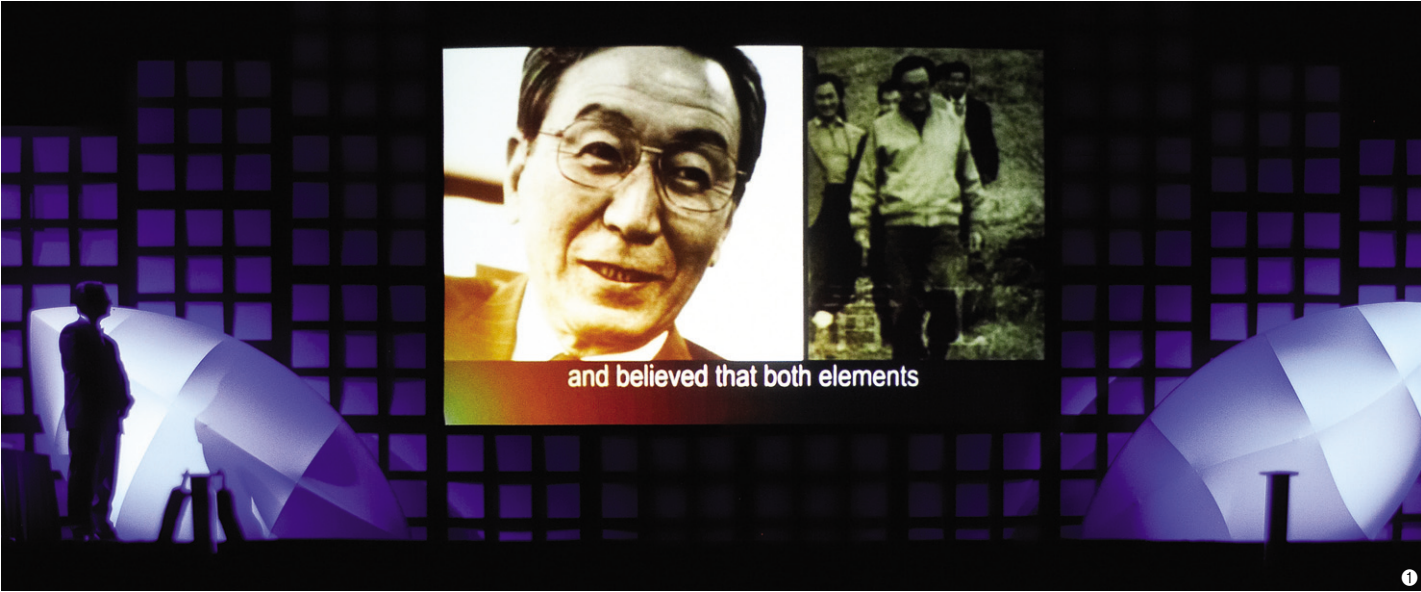
항매원 방문 Visit to Hayngaewon

Naturetech began its CSR activities in earnest since 2008. It has come up with 4-year-roadmap from 2008 to 2011 to become a company recognized for its culture of CSR. Under the slogan of "sharing love with Naturetech", the employee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and launched a campaig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orphaned children living with only their grandparents. Also, Naturetech devoted to help underprivileged social class by supporting the Food Bank delivery. Naturetech aims to run established CSR programs by 2010 by stepping up support for orphaned children living with only their grandparents and Food Bank delivery, and aspires to complete its plan to make CSR a part of its corporate culture by 2011.



푸드뱅크 봉사 활동  
Volunteer work at Food Bank  
꽃동네 봉사 활동 교육  
Education for volunteers from Kkotongnae of Jesus Foundation





① 고 이연호 회장의 비디오를 감상하며... Watching a video clip on Late Chairman Lee, Yunho ② 사업 리더들이 이병훈 총괄사장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Field leaders help to sing 'Happy Birthday' to Chairman Bill Lee. ③ 유니베라 10년 - 하나의 진실 Univera-Ten Years-One Truth

## 북미 컨벤션 - 유니베라 미국 10년을 기념하며... North America Convention Commemorates 10 Years



④ 유니베라 10주년 기념 컨벤션 Celebrating 10th Year of the Univera Convention with Chairman Bill Lee ⑤ 컨벤션 행사에 입장하는 참석자들 Welcome to the Convention 2009 in Seattle ⑥ 시상식 전의 분주한 모습 Excitement Before the Award Ceremony ⑦ 에코넷 부회장 스튜어트 오킬트리가 유니베라의 10년 역사에 대해 청중에게 설명하고 있다. ECONET CEO Stuart Ochiltree takes the audience through Univera's 10-year history. ⑧ 유니베라 사업 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주요 사업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Important Field Leaders take part in a panel from stage to discuss tips and advice for growing the Univera business.

지난 7월 말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2천 여명의 유니베라 북미지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유니베라 북미지사 10주년을 축하하는 연례 컨벤션을 열었다. 컨벤션이 열린 금요일 저녁, 에코넷 웨스트 부회장 스튜어트 오킬트리는 웃음과 눈물, 향수가 가득한 유니베라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시간 여행으로 참석자들을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유니베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한다는 유니베라의 특별한 이념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니베라 가족들은 직접판매협회 회장 닐 오펜, 경제학자 폴 제인 플리처, 트레이너 팀 세일즈 등 세계 유수의 업계 및 경제 전문가들의 강의를 경청했다. 뿐만 아니라 어소시

Nearly 2,000 members of the Univera North America community celebrated our 10-year anniversary during our Annual Convention in Seattle, Wash., this past July. During the evening session on the Friday of the event, ECONET CEO Stuart Ochiltree led attendees on a journey through the Univera time machine with an at times nostalgic, poignant, and even humorous presentation that covered where we have been, where we are going, and just how special the mission is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Associates were inspired by world-renowned economic and industry experts including Direct Selling Association President Neil Offen, economist Paul Zane Pilzer, and trainer Tim Sales. They gained practical advice on further growing their businesses from some of our top Field leaders, and they were treated to





❹ 유니베라 북미지사 사장인 리치 래즈게이티스가 저녁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Univera North America President Rich Razgaitis kicks off the evening gala from stage. ❺ 유니베라 북미 사장인 리치 래즈게이티스와 함께 한 사업 리더위원회 멤버들 Members of the Field Leadership Council (FLC) pose with Univera North America President Rich Razgaitis (left) from stage. ❻ 유니베라 어소시이트들이 무대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 Univera's Associates sing karaoke from stage. ❼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한국 UP들과 함께 한 이병훈 총괄사장과 김동식 사장 Korean Univera Planners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called "Han bok" with President Don Kim and Chairman Bill Lee ❽ 컨벤션을 위해 애쓴 유니베라 미국 직원들 - 메리데스, 데이브, 린, 테리, 제니퍼, 엘리자벳, 팀, 바비, 캐시, 사라, 줄리, 레이첼 Thank you Univera Corporate Team-Merideth, Dave, Lynn, Teri, Jennifer, Elizabeth, Tim, Bobby, Kathy, Sarah, Julie and Rachel

이트들은 사업 리더들로부터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유니베라 지원팀이 이번 행사를 앞두고 개발한 최신 세일즈 기법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올 여름 새롭게 선보인 4가지 신상품을 선 매할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유니베라의 첫 스킨케어을 선택할 L'initié Complete Hydration System이 첫선을 보였다. 스킨 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현장 인력으로 구성된 체험단이 무대 위에 올라 하얗고 탄력 있는 피부를 과시하는 순서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노고에 값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엘 케러닌과 젠 캐러닌은 이연호상을, 마이클 카우프먼 박사는 올해의 직원상을, 데이비드 일리넨과 베키 일리넨은 롱 칼니츠키 고객서비스상을, 케니 로시는 유니베라 록스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밀리언 달러

new, truly hot-off-the-presses sales tools that our Corporate team had been working diligently on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event.

Everyone had the opportunity to sample and purchase the latest four products released this summer, including the L'initié Complete Hydration System-our first foray into skin care. The glamorous launch featured a panel of leading ladies from the Field who were able to try the product out beforehand and showed off their radiant skin from the stage.

Many Associates received much-deserved recognition for their hard work this past year including Al & Jan Keranen who received the YunHo Lee Award, Dr. Michael Kaufman who received the Associate of the Year Award, David & Becky Ylinen who received the Rob Kalnitsky Customer Service Award, and Kenny Rossi who received the Univera Rock Star Award. And new to our Convention this year, we honored some of our most successful Associates through our



❽ 이병훈 총괄사장과 함께 70년대로 떠나는 여행 Back to the 70's with Chairman Bill Lee ❾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멋진 파티 Enjoying the party with delicious food and good people ❿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만세를 외치는 이병훈 총괄사장과 리건 마일즈 사장 Hurrah for a Successful Convention with Regan Miles and Chairman Bill Lee ⓫ 70년대 복장을 하고 디스코 파티에 참가한 미국 어소시이트들 Associates wearing 70's costume for disco night (Opening Celebration for Diamond/Emerald/Platinum VIP)

클럽은, 유니베라 재직 중 1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직원에게 가입의 영예가 주어지는데, 미국에서 9명, 캐나다에서 4명이 영광의 수상자가 되었다.

밀리언 달러 클럽의 회원 중에는 유니베라 캐나다 (구 마톨사)의 직원이 여럿 포함되었다. 이번 컨벤션은 몬트리올에서 새롭게 영입된 파트너들이 유니베라 직원 전체와 직접 대면하는 좋은 기회였고, 유니베라 직원들은 새로운 파트너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컨벤션 마지막 날은 이병훈 총괄사장의 생일이었다. 유니베라 가족들은 이병훈 총괄사장의 애창곡인 비틀즈의 '이미젠'을 부르며 그의 생일을 축하했다.

글 | 에이프릴 찬 카피라이터 · 웹 콘텐츠 코디네이터 | 유니베라 미국

Million Dollar Club, which is comprised of an elite group Associates-including nine in the U.S. and four in Canada-including who have, throughout their Univera careers, earned more than \$1 million in commissions.

This group included several members from Univera Canada (formerly Matol). The Convention represented the first time that the leaders of our newly-acquired partners in Montreal were able to meet the Univera community en masse, and they were welcomed with open arms.

Everyone joined in singing Happy Birthday to Chairman Bill Lee, whose birthday coincided with the final morning of Convention activities. It was followed by all Univera Associates and staff serenading Chairman Bill Lee with a karaoke rendition of his favorite song: The Beatles' "Imagine."

By April Chan Copywriter · Web Content Coordinator | Univera USA



## 알로콧 원료가공공장 기공

### Groundbreaking Ceremony for Aloe Processing Plant in Aloecorp Mexico

### El inicio de construcción de la planta procesadora de materias primas de ALOECORP de México



지난 8월25일 멕시코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주 곤잘레스(Gonzalez)에서 알로콧 멕시코 알로에 원료가공공장 기공식이 있었다. 에코넷 이병훈 총괄사장과 가족을 비롯하여 에코넷 웨스트 임원, 알로콧 멕시코 임직원, 그리고 어윈 벨라헤(Erwin Verlage) 곤잘레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알로콧 향후 50년을 책임질 신공장의 초석이 놓였다.

2010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는 알로콧 원료가공공장은 GMP규정에 맞는 기계설비와 공정을 완벽하게 갖춘 계획이다. 총면적 4,602㎡(1,364평)인 공장은 하루 최대 120톤의 알로에 잎을 원액과 농축액, 분말 전 제품으로 가공할 것이다.

Aloecorp Mexico broke ground on a new aloe processing plant in Gonzalez, Tamaulipas in Mexico on August 25<sup>th</sup>. A foundation stone was placed for the plant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for Aloecorp in the upcoming half a century. The event was witnessed by ECONET chairman Bill Lee and his family, executives of Aloecorp Mexico, and Mayor of Gonzalez Erwin Verlage and his wife.

The aloe processing plan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July 2010. It will be fully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processes which satisfy GMP standards. The 49,540 ft<sup>2</sup>-wide-factory will be able to process 120 tons of Aloe leaves into various forms such as liquid (1:1 product), concentrate and powder.



초석을 놓는 임원들과 귀빈들 VIPs laying the foundation stone of the factory Los VIPs colocan la primera piedra



이병훈 총괄사장의 인사  
Chairman Bill Lee makes a bow.  
Presidente corporativo, Bill Lee está dando una palabra de saludo.



알로콧의 지난 20년의 역사는 도전과 창조의 역사였다. 알로에 농장의 미국 현지화 성공에 기뻐할 틈도 없이 치명적인 냉해 피해를 입었고, 새로운 농장으로 찾은 멕시코에서도 척박한 땅에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알로콧은 세계 최고의 알로에 원료를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농장을 조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곤잘레스 농장도 체계적인 경작 프로그램 아래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알로에 원료가공공장도 출범하였다.

글 | 김수겸 상무 | 알로콧 미국

Founded 20 years ago, Aloecorp's history has been dotted with numerous challenges and trailblazing. Successful localization of Aloe farms in the USA was battered by severe cold spell, and newly built farms in Mexico suffered from arid soil, yearly drought and drowning. Despite such hard circumstances, people at Aloecorp exerted every effort to build farm and develop new technology, bearing in mind the company's objective of producing the world's best aloe materials. Thanks to their efforts and systematic cultivation program, aloe farm in Gonzalez began to show stable results and a promising new aloe processing plant is under construction.

By Joseph Kim Vice President | Aloecorp USA

Los pasados 20 años de ALOECORP han sido una historia de desafíos y creaciones. Sin tener ningún hueco para felicitar la exitosa localización de la plantación en EEUU, nos vimos afectados por los daños por el frío. En México en donde encontramos una nueva plantación, tuvimos que sufrir la sequía y las inundaciones continuas. A pesar de todas estas dificultades, ALOECORP hizo su máximo esfuerzo por establecer plantaciones y desarrollar nuevas técnicas, con objetivo de producir materias primas de aloe de primera calidad. Este empeño brindado llevó su fruto, la plantación de González asentada bajo el programa sistemático de cultivo, y el inicio de construcción de una planta procesadora de materias primas, comprometedor de un nuevo futuro.

Escrito por Joseph Kim vice presidente de | ALOECORP de EEUU



알로콧 미국 윤경수 사장의 기공식 축하연설 (좌로부터 유정상 남양 베라스파 사장, 이병훈 총괄사장, 어윈 벨라헤 곤잘레스 시장과 부인, 스튜어트 오킬트리 부회장, 성한용 사장, 에네스토 실가도 알로콧 멕시코 공장장) K.S Yoon from Aloecorp gives a congratulatory speech at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rom left: Namyang Veraspa President Jungsang Yoo, ECONET Chairman Bill Lee, Mayor of Gonzalez Erwin Verlage and his wife, ECONET Vice Chairman Stuart Ochiltree, ECONET CFO H.Y Sung, Aloecorp Mexico Director Ernesto Salgado) K.S Yoon, presidente de Aloecorp de EEUU está dando su discurso de felicitación [Empezando por la izquierda, CEO de Namyang Veraspa J.S Yoo, Presidente Corporativo Bill Lee, Presidente Municipal de Gonzalez Erwin Verlage con su esposa, Econetwest Vice presidente Stuart Ochiltree, CFO de Econetwest H.Y Sung, Director de Aloecorp de México Ernesto Salgado]

신 공장 모형도 설명 Presentation of the miniature model of new factory Dando explicación de la maqueta de la nueva planta

공장 모형도 Miniature model of the plant La maqueta de la planta





# 에코넷 러시아 농장의 세 가지 원칙

## Three principles of ECONET farm in Russia

글 | 문선유 기획위원 | 기획인사팀 | 에코넷 한국 홀딩스

By Sunyu Moon Planning Director | Planning & HRM Team | ECONET Korea Holdings



호수 수로에서 본 영농 컨트롤 캠프 전경  
Sight of farmers' control camp - view from lakeside

### 에코넷 웨이 ECONET Way

러시아 농장의 게스트 하우스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다. 도로에서 곧게 뻗지 않고 이리저리 굽었다. 2003년 이병훈 총괄사장은 게스트 하우스 터에서 큰 길까지 길을 어찌 낼까 고민하다가, 예취기를 단 트랙터를 불러 자신이 걷는 뒤를 따르게 했다. 그리고는 나무를 피하고 희귀한 꽃 군락을 에둘러 가며 기왕에 남아 있던 고살을 찾아 이어가면서 도로까지 걸어갔다. 그 뒤를 따라가며 트랙터가 잡초를 쳐냈다. "이대로 길을 내 주소" 길은 그렇게 이병훈 총괄사장이 밟은 궤적을 따라 나게 되었다. 곧지는 않지만 돌아간 덕택에, 끊어졌던 길들은 이어지고 나무와 꽃은 제자리에 남았다. 가능하면 자연을 해치지 않겠다는 에코넷의 원칙 때문이었다.

The road to the guest house of ECONET's Russian farm is not straight-forward. The road turns and winds a good deal. In 2003, ECONET Chairman Bill Lee thought about building a route from the main road to the guest house. He called a tractor having a reaper, and let it follow him while he was walking. He walked detouring trees and flower bushes, seeking for the small paths almost faded away to connect and restore them the old function as a passage to the road. The tractor followed him to the main road, cutting down weeds. "Build the road following the trace that I walked," Bill said. The road was built along the trace that Bill walked through at that time. The road was built along with the philosophy that Bill had kept for a long time. The inconvenient detouring passage was built by connecting small paths which had been scattered around, and trees and flowers still remained in the same place thanks to ECONET's principle of respecting nature.





파종 중인 농부들 Farmers at sowing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kind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상생한다는 에코넷 농장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제초를 하고 비료를 줄 때에도 자연은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동반자이다. 기본적으로 땅은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는 윤작과 같은 체계적인 경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람의 손길이 끊어졌던 황무지가 에코넷 농장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둘째,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약초를 대량 재배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 집단농장이었다고 해도 수십 년 묵은 땅을 다시 농장으로 조성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기본적으로 게르마늄 토양이라 약초가 자라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다. 잡초로 가득한 목장밭을 농토로 만들려면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새로 수로를 내고 트랙터가 다닐 길도 만들어야 했다.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선 인류의 건강에 유용한 유용성분을 적당히 함유하고 있는 약초를 찾아야 하고 이를 대량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유니젠이 수 년의 연구 끝에 찾아낸 소재가 유니베스틴이고 그 기초성분인 바이칼린을 다량 함유한 식물이 바로 황금이다. 이제 이 황금을 대량 재배할 수 있어야 한다. 집 앞 작은 텃밭이 아니라 적어도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넓이의 거대한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농장의 황금에서 적당한 뿌리를 캐려면 적어도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자연만이 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다 해도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느새 눈이 내릴 수가 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파종하기조차 어렵다. 잠시라도 일손을 거두면 잡초와 싸움이다. 농사란 그런 것이다. 시간으로 기다리고 세월로 수확하는 것이 농사다. 오늘 투입해서 내일 산출하는 자동화 공장이 아니다.

The principle of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kind - the principle of ECONET farms-leads to another question: how to farm. Even though we weed and fertilize land, we should think that nature is not the one we simply expect to get benefits from but the one we help each other as a lifetime partner. Because we have been leasing our land from the next generation, we require protective farming programs such as crop rotation in order to enable sustainable cultivation. In order to render a long deserted strip of land to an ECONET farm, two conditions should be met. First, the land should be arable. Second, herbs for commercial use should be able to grow in the land in large quantities. Even though the land was once used as a collective farm, rendering it to the arable land was an uphill challenge because the land has been neglected for decades. It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that the land is ideal place to grow herb because of richness in germanium. However, the land was deserted for many years. The land needed to get rid of overgrown weeds, to dig ditches, and to build roads to enable tractors to enter the farm. To meet the second condition, herbs should be carefully selected under the considerations of health benefits, and ability to grow them in a large scale. After years of research, Unigen developed Univestin. One of its active components, Baicaline is rich in *SCUTELLARIA BAICALENSIS*. The next requirement is to grow *SCUTELLARIA BAICALENSIS* in a massive scale. It is desirable that the farm should be as large as dozens of football grounds. Also, the roots of *SCUTELLARIA BAICALENSIS* takes at least two years to be mature enough to harvest. No one can forecast what will happen in the meantime, but only nature can. Even though one can predict and prepare in advance, unpredicted rain or blizzard can ruin the entire harvest. There is no chance to sow seeds when it rains; weeds grow all over the field if it is neglected for only a short time. That's what farming is all about. It takes time-sometimes years to harvest. It is nothing like an automated manufacturing line in which a product can be produced overnight.



제1농장 황금밭 The field of SCUTELLARIA BAICALENSIS in the first farming sector

## 인간과 노동이 가치 있는 Value of people and labor

그렇게 어렵게 조성한 농장이 인간과 노동이 가치 있는 에코넷 러시아 농장이다. 농사의 핵심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으면 농장도 없다. 러시아 농장 초기에 천막 생활을 하던 농부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갑자기 숙소를 마련하려니 자재를 구입하고 운반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컨테이너였다. 당시 러시아 농장을 개척하던 구원모 사장은 한국에서 화장실과 침실이 달린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러시아로 수송하였다.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다만 앉아서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러시아 제1농장 입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노란색 컨테이너 사무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작업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원한 물이 있으면 좋겠네,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있으면 좋겠어.” 오늘도 그는 인간과 노동이 가치 있는 농장을 꿈꾼다. 그것은 생산물이 가치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고 노동이 가치 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에코넷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는 뜻이다.

ECONET's Russian farm was built up after experiencing so many difficulties. What lies at the core of farming is people. Without people, farming is impossible. At the onset of building the farm in Russia, farmers used to reside in tents. Providing shelter and office to them was an utmost priority. However, purchasing and transporting building materials could not be done in a short period of time. Ku, Wonmo, the manager breaking the farm at that time came up with an astonishing idea of using containers. He ordered containers having toilet and built-in bed in Korea and transported them to Russia. He thought the utmost priority should b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orking at the farm to help them with a proper shelter where they could rest and dine. The yellow container office produced at that time is still being used at the gate of the first farming sector in Russian farm. “What if they want to go to the toilet during work? They may need a fresh cup of water, and shade that blocks sunshine.” At any circumstances, Ku dreams of the value of a farm that enables to render the value to the people and labor. It means that not only the harvest is valuable, but the people and their labor.

농장캠프 Farmers' camp







## 생명과 삶이 아름다운 Beauty of life and living

크라스키노 사람들은 에코넷 러시아 농장을 유비콤이라 부른다. 유니젠 바이오매스 콤플렉스를 줄여 부르던 명칭이 이제 굳어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어느새 러시아 지역사회에서 우리 기업으로 정착한 것이다. 아름다운 농장이란 그 농장이 있어 기쁘다, 그 농장이 있어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다는 것이라면 이제 유비콤은 지역민이 알아주고 나서주는 농장이 된 듯하다. 에코넷 가족이 된 걸 환영하면서 에코넷 가족 하나하나가 바라는 행복을 지키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것이 에코넷의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원칙이다. 일하는 농부들이 실제 스스로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야 그게 아름다운 농장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생과 창조와 에너지로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에코넷 농장이다.

People at Kraskino call the ECONET's Russian farm "Ubicom". It is the abbreviation of Unigen Biomass Complex. Everyone around the farm knows and feels friendly about the name. Ubicom, Korean farming company is now recognized as a member of local Russian community. The definition of a beautiful farm is that local people feel that their lives become richer and beneficial thanks to the farm. Ubicom has become one of those farms that local people love and are ready to stand up for. It is a principle for ECONET family to welcome new members, and to help and support them in order to protect happiness of all ECONETians. A beautiful farm on where the people are working and feeling proud is a place where all can share dreams, purpose and happiness together. ECONET farm is such a place in which the people working feel full of energy for rejuvenation and creativity.



#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 Time Freedom to Do What I Love to Do and Be with My Children

지난 6월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열린 2009년 유니베라 북미 컨벤션에서, 유니베라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트로 표창 받기 위해 무대에 선 테레사 몰리나에게 모든 청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테레사가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하자, 청중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페인어와 영어, 2개 국어 모두를 유창하게 사용하여 수상소감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올해 유니베라 북미지사가 스페인어/라틴계 지역 사회에서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은 테레사의 선견지명과 행동력 덕분이라는 것은 자명했다.

부동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테레사는 스페인어 사용자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다고 말했다.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정말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이나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테레사가 시애틀에서 열린 2009년 유니베라 컨벤션에서 어소시에이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Teresa speaks to Associates during the 2009 Univera Convention in Seattle.



All eyes were on Teresa Molina at this year’s Univera North America Convention in Seattle, Wash., when she took the stage to be recognized as a new Univera Diamond Associate.

When she accepted her award, the audience was held in rapt attention when she began to address them-first in Spanish, and then in English. Switching effortlessly between the two languages, it was evident that the large strides that Univera North America has made this year into the Hispanic/Latino community was thanks, in large part, to Teresa’s initiative and foresight.

With her background in real estate, Teresa says she’s often worked with the Spanish-speaking community. “They [Hispanic/Latino community] are really hard-working people who maybe have two or three jobs at a time per person, with very small wages. I wanted to bring the opportunity to them to make unlimited income and experience personal growth and better health, so they can thrive and change their culture-because there’s really no limit.”

Understanding the nuances and values of the community helped her in bridging any language gaps. “Network marketing is considered a career-not just a part time thing or a hobby. The majority of people come on board, and they appreciate the industry. In Mexico, it is prestigious to be in network marketing. That is what we’re attracting.”

Her efforts are further bolstered when she shares ECONET Chairman Bill Lee’s vision with them. “Being a part of a movement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bring renewal that everybody needs,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여 생활방식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분야는 정말로 아무런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틴 사회의 가치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장벽을 넘어서기가 한결 수월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트타임이나 취미활동이 아닌,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직업을 택한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산업에 감사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존경 받는 직업에 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입니다.”

그녀의 노력은 이병훈 총괄사장의 비전을 함께 하면서 배가되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고 나눔을 생활화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타인을 돌보고 아끼는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정신이 그녀를 정상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테레사는 네 살과 일곱 살짜리 어린 아들들을 포함한 가족과 동료들의 지속적이고 든든한 지원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제 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함께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테레사는 유니베라 제품들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6년 전 유니베라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회사의 가치와 문화, 기회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다. “저는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2년 후 2005년 컨벤션에 참가하고 난 후에 테레사에게 전환의 계기가 찾아왔다. “제가 전에 하고 있던 일을 계속했다라면, 미래에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 제가 대변하고 싶은 가치가 유니베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테레사가 꿈꾸는 성공, 즉 그녀의 고향인 마드리드에 집을 사고,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과 스페인 사이를 적절히 오가는 것은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다. 테레사는 아들들과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삶을 통한 교육, 경험을 통한 배움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여행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글 | 에이프릴 쉐 카피라이터 · 웹 콘텐츠 코디네이터 | 유니베라 미국

creating that community of people who are just giving-it’s very exciting to be a part of a company that is really looking after the other person. We’re always helping somebody because we can’t succeed unless we are helping others.”

A ‘failure is not an option’ attitude helped propel her to the top, but Teresa stresses that her success came about more so because of the help she continues to receive from her business team, which includes her two young sons, ages 4 and 7.

“I consider them a big part of my team. Every night when they go to bed, I let them know what I’m doing, and how we are doing... not just in the money but in being able to help people. They love what I do, and we’re doing a great thing together.”

Teresa’s journey with Univera began six years ago when she experienced firsthand how Univera products can change people’s lives and improve their health. Hers was a measured but steady exploration of the company’s values, culture, and opportunity. “I saw the [business] opportunity and it sounded great, but the timing wasn’t right for me.”

It became right two years later after she attended the 2005 Convention and realized, “if I kept doing what I was doing, I was going to stay in the same place I was in. If I wanted that time freedom to do what I love to do and be with my children, I needed to do something different. I realized that everything I really wanted and stood for was with this company.”

Teresa’s success now means that her dream of owning a home in Madrid, her hometown, and split her ti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pain-where her family is-can come to fruition. She’s also looking forward to traveling with her sons. “I believe highly in education through living and learning from experience, so hopefully traveling will afford us some of those lessons.”

테레사 몰리나는 아들들도 유니베라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Teresa Molina considers her two young sons a part of her Univera team.



By April Chan Copywriter · Web Content Coordinator | Univera USA





## 내 짝꿍 혜정이 My best friend, Hyejung

2008년 9월, 충북 진천. 새로운 직장에 대한 걱정으로 나의 네이처텍 생활은 시작되었다. 정식 출근 전, 신입사자들 교육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가에 버스를 타고 진천으로 향했다. 타지 생활을 오래했었지만, 진천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터미널에서 나온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그렇게 무작정 택시를 타고 10분 여의 시간이 흘러 회사 앞에 도착하였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어 주눅이 들었다.

신입사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모두 6명의 신입사원들이 모여 앉았다. 면접 날 마주쳤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것이 어색했던 나와 달리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최고 기업이고,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서 안면이 있다”며 여러 사람들과 자신 있게 회사에 대해 얘기하는 같은 팀 식품파트의 김혜정이 보였다. 면접 날부터 눈에 띄었던 혜정이를 보며 ‘이쁘게 생겼다. 그런데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In September 2008, I was terrified about my new job at Naturetech. Before I formally join the company, I took a bus bound to Jincheon to participate in new hire orientation. I am used to move around unfamiliar places, but Jincheon was somewhat different. I walked out of bus terminal, worrying about working at new place with new people. I took a taxi, and I was at the gate of the company in ten minutes. I felt small, timid and nervous.

New employees began to gather at the place. There were six of them. Some of them were people I met at the interview, and some of them were new faces. I was overwhelmed by unfamiliar surroundings. On the other hand, Kim, Hyejung, a researcher on the same team with me made confident comments on the company to others, saying “This company is No.1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and I acquainted some people from this company at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She attracted attention from me at that interview day. “She was pretty, but could I get along well with her?” I was wondering if we could be friends.

After orientation, we started work in earnest. Hyejung and I shared a room in dormitory and my desk was next to hers. Our age was the same, and we were at the same team. Because we were living in the same room, we spent most of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회사생활을 시작하면서, 혜정과 나는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사무실 자리도 앞뒤로 배정 받았다. 나이가 같고, 같은 팀으로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니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다. 자연히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고 조금씩 혜정이를 알아가게 되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좋아하는 나와는 다르게 혜정이는 술을 마시지 못했고 취향과 성격도 매우 달라 보였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혜정에 대한 처음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고민도 비슷하였고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혜정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고, 술은 못해도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회에 나와서 특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공통점을 알아가게 되면서 점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연구개발팀 신입직원으로서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교통편이 좋지 않고, 퇴근 시간도 일찍이 않아 어려웠다. 운전면허가 없던 나는 혜정이가 차를 끌고 오면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은 집에서 출발하는 혜정이가 번거로운 텐데도 싫은 내색 없이 기숙사까지 나를 태우러 왔다.

하지만 신입사원 중 같은 팀의 여직원이 단 두 명이었기 때문에 외모부터 업무까지 항상 모든 게 비교 대상이었고, 가끔 나의 지나친 승부욕 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네이처텍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직장생활이었지만, 혜정과 함께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 술은 마시지 못해도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을 땐, 물이라도 따라서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그녀가 힘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혜정과 나는 앞으로도 소중한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발전해가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글 | 박인정 연구원 | 중앙연구소 | 네이처텍



동호회 체육 대회에서, 박인정 Injung Park on Sports day

time together. Little by little, I began to know her as we talked to each other. I like to socialize, but Hyejung was a teetotaler and it seemed our taste and nature was totally different, too.

However, my opinion on her changed little by little with time. We shared similar kind of worries in life, and our ways of thinking were not much different. Also, Hyejung was a great listener, and even though she does not touch alcohol, she was able to create friendly and exciting atmosphere. I already knew that it is really

difficult to make a great friend in workplace, so I was really appreciative that I had a friend on whom I can rely. I found that we had so much in common.

We had a lot of difficulties to fit in to the new company. It was not easy to get to our workplace by public transportation and sometimes we had to work until late at night. I did not have driver's license at that time, and thanks to Hyejung I was able to get to workplace easily by her car. On Monday morning, she stopped by my dorm and picked me up even though she left from her parent's house which she was staying at weekend.

However, people compared two of us all the time in the area of appearance to performance because there were no other women on our team. Sometimes I was stressed out due to my competitive nature. But I believe even our competition did have positive effects on our work.

It has been a year since we started work at Naturetech. Last year passed so fast and I had enough troubles, but it was consoling that I have a reliable friend by my side. Even though she doesn't drink, she was always there to listen, and I could not overcome troubles without her. I wish our friendship will be forever, and our competition will always lead to creative results. Way to Go!

By Injung Park Researcher | R&D center | Naturetech



## “밥 묵었나?”

1990년 2월, 성수 전철역에서 내린 안기억은 여기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빌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층이나 20층쯤은 되는 큰 건물이라니 기대했는데, 웬걸 철공소에 기계소리에 공단이지 싶은 게 사무실 건물이라고는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았다. 그나마 기업은행이 보여 사무실이 있겠거니 다가가더니 그것도 제일빌딩은 아니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면접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이제 나도 서울의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꿈에 상경했는데, 면접도 보지 못하고 돌아설 판이었다. 공연히 서러운 생각에 맥이 빠졌다. 그때 대로 옆 우체국 건물 벽에 붙은 작은 안내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양알로에 면접장”, 아니 여기란 말이지. 그렇게 입사한 회사가 남양알로에였다.

“어이, 안기억, 점심 먹으러 가자.”

영업으로 일하던 동기들이 오늘은 내근인지 점심을 함께 먹고 찾아왔다. 구매 업무 처리에 정신이 없던 기억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함께 왓자지껄 계단을 내려갔다. 사실 요즘 같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일취월장하는 회사 덕택에 보너스를 연이어 받았으니 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마다 영업 현장에서 낚은 무용담을 이구동성으로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말랐다. 알로에를 먹고 위장병이 나았느니 간암이 나았느니 하는 말을 옮기느라 앞을 다투어 떠들썩했다.

거리에 나서며 뭘 먹을까 두리번거리던 이들의 등뒤에서 익숙한 말 소리가 들렸다.

“느그들, 밥 묵었나?”

돌아보니 이연호 사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먹었습니다.”

빈속인데도 목소리들이 우렁찼다.

“나 따라 온나?”

“예!”

기억과 동기들은 더욱 신이 나서 연호를 따라갔다. 점심 시간에 사장님을 만나면 점심값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 “Have you eaten?”

In February 1990, Ann, Kieuk was at a loss when he walked out of Sungsu Station because he couldn't find Jaeil Building. He expected a tall building, at least 10 to 20 storied high, but such a building was nowhere in sight. Clicking sound of machines from iron foundries was all over the place, and he couldn't find anything like an office building.

He went toward IBK bank in a hope of finding an office where he supposed to have a job interview, but it was not Jaeil Building. He was crestfallen, because he came all the way to the capital in a hope of getting a decent job in Seoul. When he received a phone call saying that he had passed the written exam, and asked him to come for an interview, he was ecstatic with joy. He was so disappointed to even think about going home without having an interview. At that time, he saw a small notice attached to the wall of a nearby post office, “Namyang Aloe interview”. Is this the place? Kieuk got to the interview place, and was able to join Namyang Aloe.

“Hi, Kieuk! Let's go to have lunch together.”

Ann's colleagues in Sales Team came to him for lunch; maybe they work at the office today. Kieuk, who was working on purchasing team, stood up to meet them. They went downstairs while chatting and cheering each other. In fact, they did not feel hungry at all because the company was going so well and they were given handsome amount of bonus. They talked about success stories they heard while meeting distributors. Someone recovered from chronic stomachache, and the other was cured from liver cancer after using Aloe.

When they were wondering what to eat for lunch on the street, familiar voice called their names.

“Have you eaten?”

Lee, Yunho, a president of the company, was standing behind them.

“Good afternoon, sir! We have not eaten yet.”

Kieuk and his colleagues answered perkily despite they were all hungry.

“Why don't you come with me?”

“Yes, sir!”

Kieuk and his colleagues cheerfully followed Yunho. They all knew if they



있었다. 월급에 보너스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게 객지 생활이고 총각 생활이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직원들은 오늘은 사장님이 어느 쪽으로 가셨나 탐문하기도 하고 일부러 음식점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연호는 직원들의 식사를 챙겼다. 좋아하는 칼국수를 함께 먹자고도 하고 올갱이국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회사를 위해, 또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이들이 고맙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밥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람의 인정이고 도리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한 후에 아침을 거른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안기억과 동료들도 아무리 사장이 같이 가자고 했더라도 밥 먹는 자리가 불편했으면 흔쾌히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연호는 동네 아저씨 같은, 어쩌면 삼촌 같은 푸근한 사람이었다.

글 | 문선유 기획위원 | 기획인사팀 | 에코넷 한국 홀딩스

accompanied the president to lunch, Yunho would pay for all of them. They were given salaries and bonuses, but it was not easy to live unmarried and away from home in an unfamiliar city. Some of the employees who wanted to save living costs would try to find Yunho at lunchtime to follow him. Every time he met his employees, Yunho would treat them to a meal. He would take them to his favorite places serving special kind of noodles, or snail stew. He appreciated hard work of these young men, who put so much effort for the company and for themselves. But that was not all. Yunho believed that sharing meals with others was the rightful behavior and an expression of human nature. That's why he would have breakfast with employees who had not had breakfast after monthly education session for which an expert would be invited to give a lecture. Kieuk and his colleagues would not follow Yunho so readily if having lunch with boss was uncomfortable experience. To them, Yunho was like a kind neighbor, or an uncle; a comfortable person to associate with.

By Sunyu Moon Planning Director | Planning & HRMT | ECONET Korea Holdings



# 한국 유니베라, 미국 유니베라를 가다 Univera Korea, meets Univera USA

지난 6월27일부터 7월7일까지 2008년 유니베라 한국 우수 대리점의 미국 현지법인 연수가 있었다. 연수에 참가한 유니베라 한국 대리점 사장들 20명은 2008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리점 사장들 중에 특히 성과가 좋은 대리점의 경영자로서 대리점이 윗등급으로 승격하거나 유니베라 스타상을 수상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그 부상으로 미국 현지법인을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 현지법인 연수에는 유니베라 한국과 네이처텍, 기업본부 임직원 6명이 합류했는데, 본사 임직원과 대리점 사장들 사이에 긴밀한 애정이 싹트는 기회가 되었다. 대리점 사장들에게 이번 연수는 유니베라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상상하며 사업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더하여 서구의 아름답고 인상적인 자연을 만끽하며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국 현지법인의 가장 성대한 행사 중 하나인 유니베라 미국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 첫날 방문한 시애틀은 영화에서 본 장면을 실제로 보는 즐거움을 준 멋진 곳이었다.

유니베라 미국 컨벤션 시상식에서 유니베라 미국 가족들이 수상자에게 끊임없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모습은 방문단에게 약간 낯설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웬지 모를 쨍한 감동도 주었다. 유니베라 미국 가족들은

빅토리아 섬 Victoria Island



씨월드 Sea World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이아, 가라!" "Nia, gara!"(means "Farewell, age!") in front of Niagara Fall

Heads of distributors from Univera Korea were invited to visit Univera USA from June 27<sup>th</sup> to July 7<sup>th</sup>. They were 20 heads of distributors with excellent performance record during 2008, who received Univera Star award or promoted to the above level of distributor. And tour of Univera USA was one of the prizes they won for their performance.

Also, 6 staffs from Univera Korea, Naturetech and ECONET Corporate Center joined the tour. It was an opportunity to build friendship between heads of distributors and staffs of Univera Korea. The heads of distributors were able to witness the present of Univera and share the vision of the company, and they were convinced of the bright future of their business. On top of that, they were able to enjoy impressive beauty of the nature in the USA.

The visiting group came to Seattle on the first day to join the convention, one of the biggest events in Univera USA. The city had wonderful scenery that they used to see in movies.

At the Univera convention, ECONETians in the USA gave endless clapping and cheering to awardees of the day. It looked a little unfamiliar to the Korean group, but it was nonetheless a touching moment. ECONETians in the USA were astonished by beautiful traditional Korean costume worn by Korean group on the day. Taking pictures as members of Univera families, people from Univera USA and Univera Korea shared pride and sense of unity. After the convention, Koreans went back to the hotel room and deeply moved as they found little card of welcome and a bowl of

행사가 끝난 후 숙소로 들어갔을 때, 방마다 '작은 정성의 카드'와 '컵라면'이 준비되어있는 것을 보고 방문단은 다시 한 번 진한 감동을 느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니베라인들이다.

After the convention, Koreans went back to the hotel room and deeply moved as they found little card of welcome and a bowl of noodle. Univera people in USA took attentive consideration in welcoming Koreans.





유니베라 한국 방문단이 이병훈 총괄사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Giving birthday presents to Chairman Bill Lee

한국에서 온 유니베라 한국 가족의 아름다운 한복에 감탄하였다. 유니베라 한국과 미국의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성공한 사람들 사이의 긍지와 자부심, 동질감을 공유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숙소로 들어갔을 때, 방마다 '작은 정성의 카드'와 '컵라면'이 준비되어있는 것을 보고 방문단은 다시 한 번 진한 감동을 느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니베라인들이다.

컨벤션 이후 일정은 캐나다 빅토리아섬, 밴쿠버, 토론토를 둘러보고 미국 올란도, 라스베가스를 거쳐 LA로 가는 뽁뽁한 것이었다. 각 지역의 명소를 돌며,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에 놀라기에 바빴다. 오래된 시청건물이 있는 빅토리아 섬의 아름다움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은 거대한 폭포, 나이아가라였을 것이다. 한국말로 '나이아 가라'라는 발음은 '나이아, 가라'로 들려, 떨어지는 폭포에게 젊음을 빌듯이 방문단은 이렇게 외쳤다. "나이아, 가라!" 이 때 AGX(미국 제품명 AgelessXtra)라도 먹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대리점 사장들이 솔선수범하며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한 것이었다. 여러 날 함께 여행하다 보면 지치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끝까지 협동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이 유니베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이다.

글 | 박영수 대리 | 인천영업팀 | 유니베라 한국

2009 유니베라 컨벤션 행사장 앞에 선 한국 방문단 Univera Korea ECONETians in front of Univera Convention site



noodle. Univera people in USA took attentive consideration in welcoming Koreans.

Following the convention, Koreans went around Victoria Island, Vancouver and Toronto in Canada, and toured Orlando, Las Vegas and LA in the USA. The schedule was quite hectic, but all in the group was so impressed by the grandeur of nature. Victoria Island with its old city hall building was absolutely beautiful. Of all its beauties, the most astonishing thing was the gigantic waterfall, Niagara. In Korean, Niagara sounds the same as the words, "farewell, Age!" The group shouted out to the waterfall, "Nia, gara!" as if making wish to it. We should have brought AGX(AgelessXtra in USA products) to the place.

Another touching thing was that the heads of distributors practiced servant leadership themselves. The tour schedule was so tight, but nobody complained or showed any sign of discomfort. All in the group were very cooperative and caring for each other. It made me think that success cannot be earned for nothing, and I was convinced that Univera has a bright future ahead with these people.

By Youngsoo Park Assistant manager | Incheon Sales Team | Univera Korea

라스베가스 호텔 앞에서 In front of a hotel at Las Vegas



시애틀의 니들타워 Needle Tower in Seattle



# My Favorite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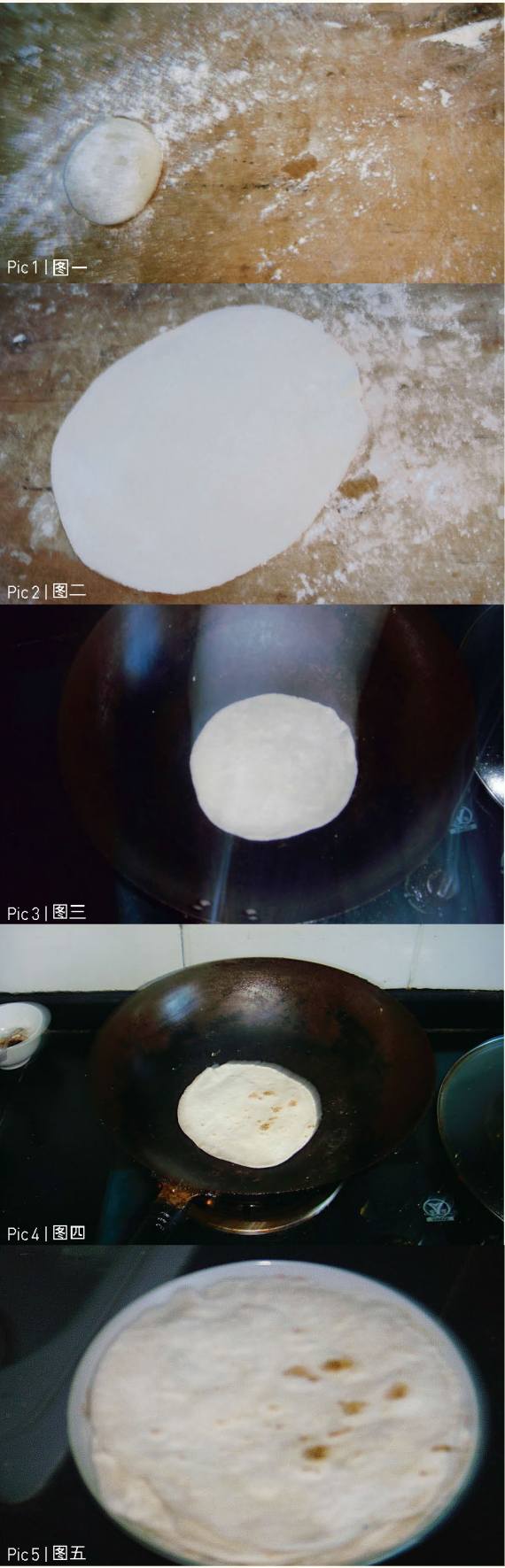
people regard food as their prime requirements, food is a basic need to survive. Nowadays, material civilization is rich, balanced diet has been the dietary standards in most Chinese family. Food should be not nutritive, but tasted great. I am interested in delicious food, cooking my favorite food for my families is so happy. Among these foods, “He Ye Juan Bing(lotus leaves rolled pastry)” is my favorite food, which is popular food for my families.

## Following is a brief method for “He Ye Juan Bing”

Mixing flour: mix the flour with boiled water, put it in the tub for 30 mins. [Pic 1]  
Devide the dough as two parts , wipe some oil between them. Then roll the dough as a pastry. [Pic 2]  
Lay it on the pan and bake it in small fire untill it was cooked. [Pic 3, 4]  
Devide it as two parts. The cooked pastry is crispy and golden and was shaped like lotus leaves, so named it as lotus leaves rolled pastry. [Pic 5, 6]  
The side dish can be prepared as personal preference Chose your favourate vegetables and meat and cut them into shreds, then use sweet soybean paste as condiment. [Pic 7]  
When eating spread one pastry in the hand, put every shred in the middle of the pastry appropriately, then roll it up. [Pic 8, 9, 10]

The taste of this pastry can made upon any flavour also it is rich in nutrition. My wife has ever had it in continued half month and finally her weight was put on 3KG. People who fears of getting fat should take care of your weight

By Yongqiang Song Production director | Production department | Aloecorp China



# 我最喜爱的食物

民以食为天，食物是人们生存的基本需要。在物质文明比较丰富的现在，食不厌精已成为普通家庭的饮食标准。既要营养丰富，又要精致好吃。我是一个比较“好吃”的人，平时也喜欢做一些喜爱的食物和家人分享。其中我最喜爱的，也是家里最受欢迎的食物就是“荷叶卷饼”。

下面简单介绍一下它的做法：

- 1、和面：用开水和面，醒约30分钟；图一
- 2、将面搓成条，分成小段，两段之间抹上油，擀成面饼；图二
- 3、上锅，小火烙熟；图三、图四
- 4、成品两面略有焦黄，可以从中间一分为二，外焦里嫩，状似荷叶，所以叫荷叶饼；图五、图六
- 5、配菜可以按各自喜好，自由选择荤、素，颜色的搭配，以切丝为好，方便包裹；还可以搭配甜面酱，大酱等作料。；图七
- 6、吃时将面饼将面饼摊在手上，将各种菜肴铺在饼中间，卷起来即可。；图八、九、十

该饼口味可任意选择，而且营养丰富，我的老婆曾经连吃半个月，体重增加了六斤。害怕长胖的人可要注意喔。

宋永强 | 海南南洋芦荟生物工程(美国)有限公司



## 가족의 고향과 뿌리를 찾아서

### Revisiting the Land and History of my Family

결혼 10개월 전, 남편과 나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중국, 홍콩, 대만을 돌아보는 여행에 나섰다. 우리 모두 길고 느긋한 휴가를 보내고, 평소에 먹던 음식과 다른 동양의 색다른 음식을 맛볼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들을 방문하고 내 약혼자에게 (이제는 남편이 되었지만) 우리 가족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베이징에서 우리는 자금성도 가고 천안문도 보고 후통이라 부르는 옛 골목길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푸청멘웨이 거리의 야시장에서 음식을 먹었다. 북경오리, 매운탕, 고기와 야채를 넣은 찐빵, 베이징 명물인 만두를 맛보았다. 이어서 만리장성에 올라 스모그에 가린 도시 너머로 청명한 경치를 바라보았다.

시안에서는 진시황릉을 찾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실물 크기의 토용 병사들을 구경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 등 소수민족의 맵고 향신료가 많이 든 음식을 맛보기도 했으며, 중국 한나라 양식

Ten months before my husband and I were married, we accompanied my parents on a trip to China, as well as Hong Kong and Taiwan. It wa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enjoy a nice extended vacation and taste the foods that just aren't the same when reproduced on this side of the Pacific Ocean. On top of that, it gave me a chance to revisit some of the places from my childhood; and it gave my then-fiancé his first look at exactly where my family came from.

In Beijing, we toured the Forbidden Palace, visited the Temple of Heaven, navigated our way through the hutongs, and ate our way across the night-time food stalls at Fuchenmenwai, enjoying everything from Peking duck to spicy hot pot to giant steamed meat- and vegetable-steamed buns and Beijing's world-famous dumplings. We also visited the Great Wall and took in the clear and refreshing views from above the smoggy city.

In Xi'an, we visited near the tomb of the great Emperor Qin, who commissioned the creation of a vast army of terra cotta soldiers that still remain today.



드럼 타워에서 찍은 사진. 아래로 베이징의 후통 골목이 보인다. From the Drum Tower, we could see the hutongs of Beijing.



시안의 박물관에서 본 토용 병사들 These terra cotta soldiers are on display in Xi'an.



이 포렛한 옛 건축물들 사이에 지어진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보기도 했다.

다음 행선지는 홍콩이었다. 나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3살까지 여기 살았다. 부모님은 내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침사추이의 골목길을 다니던 모습, 무더운 여름 시장에 가는 어머니를 따르며 땀을 뻘뻘 흘리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계셨는데, 마치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였다.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산에 올라 홍콩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내게 트램이 생기기 전에는 걸어서 산에 올랐다면서 홍콩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저녁 나절 어머니와 함께 레이디즈 마켓에 가서 가짜 옥이나 옷 등, 온갖 가지 물건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풍 뒤끝에 우리는 어머니의 고향인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의 야시장을 둘러보는 것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것이었다. 야시장에는 굴 오물렛, 오징어, 팔빙수, 신선한 구아바 등 군것질거리가

We sampled the spicy and cumin-dominant cuisines of China's minority cultures, including the Islamic Hui people, and even visited a spectacular mosque built within an older structure that was distinctly Chinese Han in design.

We next continued on to Hong Kong, which for me, was like stepping back in time. Though I was last here at age 3, all the photos that my parents kept of me as a toddler, ambling across Tsim Tsa Tsui while trying to eat soft-serve ice cream, or sweating profusely in the summers when I accompanied my mother on her daily rounds in the street markets came back to life. We rode the tram up to Victoria Peak to take in the view of the city, and my father shared with me many of his memories of growing up here, including that he used to walk the trails up to the peak before this modern tram was built. My mother and I happily spent our one night in Hong Kong exploring the Ladies Market and buying everything from clothes to knock-off jade.

On the tail of a typhoon, our last destination was Taipei, Taiwan, my mother's family's home. It was the night markets in Taipei that I was most look-

무궁무진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밤 열한 시까지 야시장을 쏘다녔다. 대만의 야시장은 밤 문화를 즐기는 인파로 가득했다. 숙모는 좀 이르지만 결혼 선물이라며 나와 약혼자가 청나라 시대의 복장을 입고 결혼 사진을 찍도록 해 주었다.

대만에서, 우리는 외할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티안무 언덕 위에 있는 절을 참배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는 지하철을 타고 단슈이로 향했다. 바닷가 휴양지인 이곳은 외할머니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이러한 추억들 덕분에 이번 여행이 내게 너무나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나의 뿌리를 되짚어 볼 수 있었고, 조부모님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멋졌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서너 달 뒤에 결혼하여 남편이 된 약혼자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글 | 에이프릴 찬 카피라이터 · 웹 콘텐츠 코디네이터 | 유니베라 미국

ing forward to exploring - eating all sorts of street food including oyster omelets, squid, shaved ice with red beans, and fresh guava. In stark contrast to our schedules in the United States, we were still out in the street markets at 11 p.m. at night, and it was filled with others partaking in the festive night life. As an early wedding present from my aunt, she arranged for us to take fun wedding portraits in Qing dynasty dress.

We also took the time to visit my maternal grandmother's resting place at a Buddhist temple up in the hills of Tianmu. And on our last day, we took the subway to Danshui. This sea-side resort town was also where my maternal grandmother had once taught grade school. Moments like these were what made the trip so memorable for me. I appreciated the opportunity to revisit my family history with my parents, and I learned many new things about my grandparents. The best part, though, was being able to share all this with my future husband - who became a part of my family a few months later.

By April Chan Copywriter · Web Content Coordinator | Univera USA



시안에서, 당나라 시대 복장을 입은 무용수들의 공연. Dancers in Tang dynasty costumes entertain guests in Xi'an.



남편과 내가 청나라 시대 복장을 입고 찍은 결혼 사진  
My husband and I pose in a Qing dynasty-style dress wedding portrait.



대만의 야시장에서 신선하고 따끈한 음식을 준비하는 아주머니  
Women prepare fresh and hot street food at the night markets in Taipei.





승마체험장에서의 나-사진컨테스트 1등 작품 The first prize winner- picture of riding horse

늘 가고 싶은 그곳 제주도

Jeju Island, I always want to go there.

푸른 초원에서 말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그 너머에 보이는 에메랄드 빛 바닷물이 있는 곳.  
그 한편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파도가 하얀 거품을 줄기차게 뿜어대며 철썩이는 그 곳.  
구멍 송송 뚫린 바위들을 모아 담장을 만들어 놓은 곳.  
그 옆으로 망사리를 들고 가는 해녀의 신명 나는 발걸음이 묻어나는 그 곳.

Horses peacefully graze grass in green meadows, and over the hills there is emerald sea.  
Wave breaks upon a high cliff into white foam all day long.  
Low stone walls made of black basalt stones lined in villages.  
And a woman diver cheerfully walks by with a basket in her hands.

나는 제주도의 그런 소박한 아름다움을 우도에서 만끽할 수 있었다. 소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우도. 제주 성산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니 제주 섬마을 풍경과 아늑한 풀밭, 그리고 눈부시도록 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 하면서 어떻게 바닷물 색깔이 그럴 수 있는지 연신 감탄사를 내뿜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부터 점심시간까지 오전 내내 시간을 할애하여 둘러봤지만, 우도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우도를 두고 어떻게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있으랴! 난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멋진 모래사장도 밝아본 적 없다.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짧은 일정으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아쉬움을 안고 다시 휴가로 찾은 우도.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욱 큰 아쉬움을 안고 뒤돌아 서야만 했다. 서서히 뱃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재빠르게 사진기에 우도의 풍경을 조금 훑쳐 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I was able to enjoy such a simple beauty of Jeju Island in Woodo Island. The island was named for its shape of a cow lying down. The tiny island was 15 minutes distance from Sungsan port in Jeju. We could see traditional Jeju-style village and green grasses, snow-white beaches and emerald sea. As we drove along the coast, we were totally mesmerized by beautiful color of the sea water.

We took as much as time we could to noon after we arrived in Jeju. It was so hard to leave Woodo behind. Anyone couldn't have hard time to leave it behind!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sea in my life, and have never walked on such a pristine beach. When I first visited, I had to leave the place soon because I had only limited time there. This was my second time. However, leaving the place was every bit as hard as before. As our time to go back to the main island draws near, we quickly stole some of the amazing sceneries of Woodo with our cameras, and headed toward our next destination.

My mate Hyanghee who went to Jeju Island together loves travel as much as I. We met first time in China when we stayed there for a month in a same room to study Chinese. We shared the same idea of traveling after acquainting each other for years now. We planned a breathtakingly hectic itinerary for two days and three nights from June 26<sup>th</sup> to 28<sup>th</sup>.

On the first day, we looked around eastern part of Jeju; Woodo, Sungsan Ilchulbong(sunrise mountain), Subji-koji, Sungeup traditional village, Mini-mini land. The second day we covered southern part; Teddy bear museum, Pacific land, African museum, Pillar-



우도 Woodo Island





성산일출봉에서 친구 향희와  
The Sunrise Mountain at Cheju Island with my friend Hyanghee



화산폭발 당시 생겨난 곳 주상절리  
Pillar-shaped joint created by a volcano burst in Cheju Island

지난 제주도 여행, 그 때의 유난히 맑고 화창한 날들을 기억한다.  
땀 흘리며 올랐던 성산일출봉에서 마신 물 한 모금을 기억한다.  
별을 보며 친구와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그 때의 바람을 기억한다.

I remember the exceptionally bright and blue sky over the Jeju Island.

I remember a sip of fresh water I took on the peak of Sungsan sunrise mountain.

I remember the talk we had while looking up the starlit sky, and the refreshing whip of wind.

함께 여행을 한 친구 향희는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만큼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 달 정도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방을 함께 쓰면서 인연을 맺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이 친구와 여행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일까. 그래도 그렇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우리는 무리이다 싶을 정도로 숨가쁜 여행 코스를 계획했다.

우리는 코스를 셋으로 나눴다. 첫째 날은 제주도 동부인, 우도-성산일출봉-섬지코지-성읍민속마을-미니미니랜드를, 둘째 날은 남부인, 테디베어 박물관-퍼시픽랜드-아프리카 박물관-주상절리-천제연폭포-세계자동차박물관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숙소 근처의 돌하르방공원과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시작으로 만장굴-산굼부리-열기구체험-승마체험-초콜렛 뮤지엄-한림공원을 섭렵했다.

우리는 2박3일 동안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기업을 토하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여행의 가장 큰 묘미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인데, 이번 여행의 목적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이었으므로, 제주도 음식을

shaped joint, Cheonjeyeon waterfall, World vehicle museum. On the third and last day, we visited Dol-harubang(traditional stone statues), Film set of Taewangsasingi(a Korean TV drama), Manjang cave, Sangumburi(an old crater), hot-air balloon, horse riding park, Chocolate museum and Hallim park.

The schedule was so hectic that we did not have time to sit down and eat. We barely had one meal for a day in order to visit so many places. One of the pleasures of travel is to eat local food. However, we could not have enough local dishes, because we had to look around so many places in a limited time. But we did have some memorable meals. On the first day, we went to a seafood restaurant where a thick, fresh raw fish was served. On the evening of the second day, we were so starved that we chose a random restaurant. The restaurant served us roasted Jeju black pork, and it was deli-



아프리카 박물관 앞에서 점프샷 Jumping in front of African Museum

많이 접하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다. 리조트 관리인의 추천으로 첫째 날 저녁에 갔던 횡집에서는 아주 두툼하고 신선한 회를 배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었다. 둘째 날 저녁은 허기에 지쳐 무작정 골목으로 들어가, 눈에 띈 흑돼지 구이 집에서 제주 토종 흑돼지 구이를 먹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음식점 주인은 제대로 찾아왔다고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게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제주도 말로 '혼저감서예'라고 '잘 가라'는 인사도 해주었다.

지난 제주도 여행, 그 때의 유난히 맑고 화창한 날들을 기억한다. 땀 흘리며 올랐던 성산일출봉에서 마신 물 한 모금을 기억한다. 별을 보며 친구와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그 때의 바람을 기억한다. 난 생각한다. 여행이라는 건 나를 위한 다 비워내고, 최대한 그곳을 만끽하고, 동행하는 친구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 친구와 제주도 여행은 나에게 행운이었고, 또한 행복이었다. 아,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늘 그것에 감사한다.

cious. We were full and satisfied. Additionally, we were pleased with a word of farewell in Jeju dialect, "Honjagabsoye!" that the owner of restaurant said to us.

I remember the exceptionally bright and blue sky over the Jeju Island. I remember a sip of fresh water I took on the peak of Sungsan sunrise mountain. I remember the talk we had while looking up the starlit sky, and the refreshing whip of wind. I think that a travel must be an opportunity to refresh myself, experience every bit of the place, and share the pleasure and excitement with companions. Our trip to Jeju Island was a fortunate and happy moment. I am a lucky person. I always thank God for that.

By Jihye Hwang Researcher | Natural Product Team | Unigen

글 | 황지혜 연구원 | 천연물연구팀 | 유니젠



1등

First Prize



#### 새로운 메뉴에 도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7월 시애틀의 “바이트”에서 악어고기 꼬치를 먹고 있는 사진이다.  
기록을 위해 적어둔다면, 그건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맛이 났고 굉장히 맛있었다!

#### Trying something new!

My favorite food is “trying something new”.  
Here is a picture of me trying “Alligator on a Stick” at the Bite of Seattle in July.  
For the record, it tasted like a combination of chicken and pork and was quite delicious!

사라 페스메네덴 | 다이아몬드 지원팀 | 유니베라 미국  
Sarah Pathmanathan | Diamond Support Team | Univera USA

2등

Second Prize



#### 부산 출장 후 먹는 복국.

강사들이 정말 좋아해요!

#### Blowfish soup at Busan, Korea

Instructors are loving it!

황선희 | 교육팀 | 유니베라 한국  
Sunhee Hwang | Education Team | Univera Korea

3등

Third Prize



#### 두유를~ 마셔 봐!

오용충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영양이 풍부한 두유이다. 저지방일 뿐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 또한 뛰어나다. 그뿐만 아니라 두유는 피부에도 좋다. 매일 두유를 마시는 것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습관이다. 덕분에 그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나이가 궁금한가? ..... 놀라지 마시라. 무려 53세이다!

#### Soybean Milk~ Drink it!

Yongzhong Wu would like some nutritive food, soybean milk. It is his favorite food. It is low in fat, high protein and tastes great. What's more, drinking soybean milk is good for your skin. Wu sticks to drinking it every day. Look. How strong he is! Can you guess how old he is? ..... 53!!!

오용충 구매담당 | 물류팀 | 알로corp 중국  
Yongzhong Wu purchasing coordinator | Logistic department | Aloecorp China

아차상

Just Missed Prize



#### 숯불통닭!

생후 5개월된 아들도 맛을 보지만 매운지 싫어합니다.  
닭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백미는 숯불에 구운 통닭이죠.  
아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 BBQ chicken

My son who was 5 months old tried it, but he seemed to think it was too spicy.  
I love all chicken dishes, but grilled chicken is my favorite! My son and I had wonderful time.

김도명 대리 | 유통관리팀 | 유니베라 한국  
Domyung Kim Assistant Manager | Sales Distribution Team | Univera Korea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전해주드리겠습니다. For those whose photo is selected, we will send a small gift.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2009 에코넷 서번트 리더십 교육 실시  
2009 ECONET servant leadership training

2009년 에코넷 한국 3사는 직급별로 서번트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팀원들을 대상으로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간, 독서통신교육을 실시했다. 팀장을 대상으로는 6월11일과 7월10일(택일), 임원과 본부장을 대상으로는 8월 26일,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팀원 대상 교육에서는 개인과 회사의 관계를 돌아보고 각각의 비전을 함께 생각 하도록 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했다. 팀장들은 서번트 리더로서 경청, 질문, 피드백이라는 스킬을 진단, 학습하고, 관계 향상과 성과 창출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과 본부장은 관계 향상과 성과 창출, 그리고 리더로서 조직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 을 가졌다. 향후 각 계열사와 본부의 임원 및 본부장을 주축으로 리뷰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Three companies in ECONET EAST had education sessions by rank about servant leadership. To team members, reading and tele-educational materials has been given for 2 months from June 1<sup>st</sup> to July 31<sup>st</sup>. To team leaders, training was given on June 11<sup>th</sup> and July 10<sup>th</sup> (on either day), and for executives and division leaders, four hours of intensive session was provided on August 26<sup>th</sup>. Team members were asked to contemplate on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company, and think of a vision for him- self/herself and the company respectively. For those who excelled in the session, gift certificates were given out. As servant leaders, team leaders learned three skills- listening, asking and feedback, and contemplated on ways to improve performance and relationship. Executives and division leaders were asked to think about how to improve relationship and performance, and ways to make a positive influ- ence to grow his/her company. ECONET is planning to have a review workshop for division leaders and executives.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2009 꿈나무 캠프  
2009 Children's summer camp

2009년 여름,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유니베라 유피 자녀와 임직원 자녀, 성애원 원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꿈나무 캠프가 열렸다. 성애원은 유니베라가 후원하는 양육복지시설로 유니베라는 꿈나무캠프, 주요음악회에 원아들을 초청하 기도 하고 연말이나 명절에 선물과 성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꿈나무 캠프는 총 2차(1차: 7월28~31일, 2차: 8월 4일~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회차별로 170명씩 총 340여명 이 참여하였다.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을 주제로 명랑체육대회, 포스트 활동, 환영의 밤, 물놀이, 천연염색하기, 사물놀이, 요리,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희망풍선을 날리 면서 유니베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졌다.

In the summer of 2009, a youth camp for children of Univera UPs, employees, and children at Sungaewon was held. Sungaewon is an orphanage supported by Univera. Univera invites children in the facility to summer camps and Wednesday concert, and give them presents and donation on year's end and special holidays.

Children's summer camp were held two times (first: July 28<sup>th</sup>~31<sup>st</sup>, second: August 4<sup>th</sup>~7<sup>th</sup>), each partic- ipated by 170 children. Under the theme of love for people, nature and culture, various events such as a sports day, post activity, welcome night, swimming, natural dyeing,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per- formance, cooking and dancing party were held, and children had exhilarating time. On the last day of camp, children were able to remind a sense of pride on Univera and people as they let "hope balloons" fly to the sky.

에코넷 3사 인터넷 전화개통

Internet telephone has been connected between three ECONET family companies

8월17일 한국의 에코넷 3사, 유니베라, 네이처텍, 유니젠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원가절감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 인터넷 전화 개통으로 3사간에는 내선통화 요령과 비슷하게 9번을 누른 후 내선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가능하다. 더욱이 통화료는 무료이다.

On August 17<sup>th</sup>, Internet phone line was launched between three companies-Univera Korea, Naturetech and Unigen-to reduce cost and improve communication among ECONET Korea families. To use the internet phone, like extension line, press 9 and extension numbers. Also, the phone is free.

UPS 우수 대리점, 러시아 연수

UPS excellent distributors visit Russia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UPS 우수 대리점 러시아 연수가 있었다. 우수 대리점 사장 20명과 김동식 사장을 비롯한 본 사 임직원 6명, 총 26명이 연수길에 올랐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연수 일행은 잠수함박물관, 전망대 등을 관광하 고, 농장이 있는 크라스키노로 이동하여 농장을 체험하였다. 이번 러시아 연수는 본사 임직원이 대리점에 대해 의견 을 청취하는 간담회까지 마련되어 짧지만 매우 알찬 연수였다.

Distributors of Univera which excelled in performance received an opportunity to look around Russia from August 21<sup>st</sup> to 24<sup>th</sup>. The trip was participated by 20 distributors and executives and employees including President & CEO Don Kim of Univera. The group went first to Vladivostok and toured subma- rine museum and observatory, and moved to Kraskino to look around the ECONET farm there. Although the trip was short, the training was full of valuable events such as a hearing of distributors' opinion by Univera executives.

UPS 집중육성 대리점 세미나

UPS intensive training seminar

유니베라는 5월 UPS의 전국 시행 이후 UPS의 초기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별로 집중육성 대리점을 선정하고 매월 해 당대리점 사장이 참석하는 UPS 집중육성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리점 세미나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은 UPS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나 노하우, 가이드를 함께 공유하였다. 대리점 세미나는 UPS제도 혁신을 위해 변화 포인트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리점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9월3일 이경원 영업1본부장이 PM(Project Manager)으로 활동하 는 제도연구회도 시작되었다.

Univera designated intensive incubation distributors for each Sales Division to accelerate establish- ment of UPS after it was introduced nationwide in May. The designated distributors have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intensive training seminar in each month. The seminar was aimed at sharing difficulties, knowhow and guidance between distributors and Univera as they applied to UPS. It was also a good opportunity to find out chances to change for the better to improve UPS further. Based on the semi- nar's result, a study group headed by a general manager of the First Sales Division, Lee, Kyeong Won as PM (project manager) was initiated.

신제품 '홍삼액 키즈' 출시

"Red Ginseng Tonic Kids" has been launched

유니베라는 9월 어린이용 홍삼제품 '홍삼액 키즈'를 출시했다. '홍삼액 키즈'는 국내산 고려인삼만을 엄선했어 유니 베라가 개발하고 특허한 UGSG(Univera Ginseng Standardized Red Ginseng) 홍삼농축액과 유니베라 고유의 특허물질 액티브알로에, 시베리아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 체질에







관계없이 흡수가 잘 된다. 아울러 면역력을 증진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Univera launched new ginseng product, “Red Ginseng Tonic Kids” for children in September. Red Ginseng Tonic Kids contains UGSG(Univera Ginseng Standardized Red Ginseng), a proprietary material made only of Korean Ginseng developed and specialized by Univera, Univera’s patented Active-Aloe and Siberian Ginseng. It is effective regardless of the kid’s physical condition. Also, it also boosts immunity and helps recovery from fatigue.

수요음악회 : 김덕수패 사물놀이  
Wednesday concert: Korean percussion quartet concert

8월에 열린 예정이던 26차 수요음악회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장으로 연기되었다가 9월16일 열렸다. 추석을 앞두고 높은 관심 속에 열린 수요음악회, 김덕수패 사물놀이 공연은 한국의 정서와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The 26<sup>th</sup> Wednesday concert which was originally planned to hold in August was postponed to September 16<sup>th</sup>, because of national funeral of late president Kim Daejung. Interest on Korea’s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Korean Samulnori) presented by Kim Deoksoo and his crew was particularly high because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was drawing near. It was a moment that everyone was immersed in Korean culture’s authenticity and beauty.

네이처텍 Naturetech

BAES 제1호 제품 출시  
Launch of the first BAES product

네이처텍은 7월3일 네이처텍의 독자 기술인 BAES(Bioavailability Enhancement System)의 제1호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첫 출시한 BAES제품은 홍콩으로 수출하는 드링크 제품이다. 앞으로 네이처텍은 BAES 제품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동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제품개발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Naturetech launched the first product using Naturetech’s authentic BASE(Bioavailability Enhancement System) and had an event to celebrate the launch on July 3<sup>rd</sup>. The first BAES product which will be exported to Hong Kong is a drink-type product. Naturetech will continue to inform the public of excellence quality and effect of BAES-applied products, and will provide high quality products for customers differentiated from competitors based on solid scientific technology.

‘황금을 함유한 탈모 예방 및 양모 촉진용 조성물’ 특허 출원  
Application for patent of a “composition to prevent and cure thinning hair which contains SCUTELLARIA BAICALENSIS”

네이처텍 연구개발실은 지난 7월 13일 ‘황금을 함유한 탈모 예방 및 양모 촉진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 탈모 예방 및 양모 촉진용 조성물은 황금뿐만 아니라 하수오, 마치현, 은행잎, 고삼 등 총 8가지 식물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며, 모근 세포로 원활하게 혈액을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두피를 보호하고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까지 있어 탈모 예방 및 양모 촉진에 탁월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발실은 이를 바탕으로 2009년 BAES 과제로 황금을 이용한 탈모예방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Naturetech R&D center applied for patent for “composition to prevent and cure thinning hair which contains SCUTELLARIA BAICALENSIS” on July 13<sup>rd</sup>. This substance contains 8 vegetable extracts other than SCUTELLARIA BAICALENSIS such as Cynanchum silfordii hemsley, Portulaca Oleracea, Ginko biloba, Sophorae Radix so it does not have harmful side effects, helps blood circulation in hair roots,



protects head skin and provides nutrients to hair. In short, it shows excellent effect in preventing and treating hair loss. R&D center is currently developing a product using SCUTELLARIA BAICALENSIS which prevents hair loss, and designated it as 2009 BAES priority task.

US FDA의 정기 검사  
Routine inspection by US FDA

2009년 8월20일~21일 양일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US FDA)의 실사관 데이비드 킹(David King)이 네이처텍을 방문하여 정기 검사(Routine Inspection)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사는 네이처텍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실무자들 및 팀장들에게 프로세스 및 관련문서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실사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네이처텍의 GMP시스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GMP 기준인 21 CFR Part 111에도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On August 20<sup>th</sup> and 21<sup>st</sup>, David King, an inspector from US’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visited Naturetech to conduct a routine inspection. This inspection was applied to production process and quality management of Naturetech, and the inspector confirmed process and related documents submitted by working level people and team leaders. The inspection went successful. From this Routine Inspection, it is proved that Naturetech’s manufacturing system complies with not only KGMP(Korean GMP), but also 21 CFR Part 111.

중앙연구소(R&D Center) 인정 획득  
Naturetech R&D center

8월 27일 설립된 네이처텍 중앙연구소는 9월 15일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득하였다. 통상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 요건으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을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물적 요건으로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국책과제에 대한 우선 신청자격 확보가 가능하고, 선정 후 조세, 관세, 인력지원 측면에서 경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앙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네이처텍은 대내외적으로 R&D 전문기업으로서 면모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Naturetech R&D center got a certificate as a R&D center attached to a company from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KOITA) on Sep. 15<sup>th</sup>. Establishing an R&D center for a company, the organization is required to meet two conditions. First, a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should hire at least five full-time researchers, and should be equipped with independent facilities and spa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If the application to KOITA is qualified, tax credit on research and human development cost will be granted as well as tariff reduction on research items. Also, the center will have advantage over others if it applies for research project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If it wins the project, it will get extra tax reduction and government subsidy in tax, tariff and human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R&D center is an opportunity for Naturetech to improve its image of R&D powerhouse.

유니젠 Unigen

천연여드름소재의 생산공급 후보사 발굴을 위한 중국업체 방문  
Visit to Chinese companies to select a natural product provider to treat pimples

유니젠 천연물팀의 김동선 박사와 치 지아 박사가 지난 8월5일~12일, 8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천연여드름소재의 생산 공급 후보사를 발굴할 목적으로 중국 업체를 둘러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Worldway, KOC, AIGI, SCC 총 4 곳을 방문했다. 그 중 Worldway사는 우수한 연구능력과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천연여드름소재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후보로 worldway를 선정하고 생산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수확된 천연여드





름소재 원료인 보골지(공과에 속하는 개암풀의 열매를 말린 것)를 더욱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r. Qi Jia and Dr. Kim, Dongseon natural product R&D from Unigen visited China for 8 days from August 5<sup>th</sup> to 12<sup>th</sup>. Their visit to china was to inspect and select Chinese companies which will provide raw materials of natural product to treat pimples. They visited four companies-Worldway, KOC, AIGI and SCC. Among them, Worldway had a superior R&D and production capability. The team selected Worldway as a most suitable candidate to produce and provide natural products, and decided to share knowhow of producing cure for pimples. According to the decision, Unigen expects to produce psoralea corylifolia, a plant of bean family known to treat pimples, at a lower price as it relocates production base to China.

**여름휴가 사진 콘테스트**  
**Summer vacation photo contest**

유니젠은 8월의 문화행사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여름휴가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다. 많은 임직원이 여름 휴가를 기억할 만한 사진을 제출했다. 사진은 크게 인화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아트리움에 일주일간 전시했다. 전시한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투표하여 순위를 정했다. 1등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멋진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제출한 황지혜 사원에게 돌아갔다. 2등은 장군을 코믹하게 연출한 이정민 사원, 공동 3등은 귀여운 딸 채리의 모습을 담은 김현진 과장과 남해에서 신혼을 만끽한 이정민, 장미라 부부의 사진 이 선정되었다. 전 임직원의 지난 휴가 시간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Unigen held a summer vacation photo contest from August 24<sup>th</sup> to 28<sup>th</sup> as a culture event of August. Many employees submitted memorable photos from summer vacation. Photos were magnified and exhibited for a week in Atrium so that all employees can see. Employees voted for their favorite photos. The first prize went to Jihye Hwang, whose photo featured her riding a horse in Jeju Island. The second prize was for Jungmin Lee, who wore a comical costume of general. The third place was claimed by two; one is Hyunjin Kim who pictured his adorable daughter Chaeri, and Jungmin Lee and Mira Jang who spent a romantic honeymoon in Namhe. It was an enjoyable event for all employees to share their memories of summer vacation.

**알로콥 중국 Aloecorp China**

**IASC 인증 준비**  
**Preparation for IASC Certification**

알로콥 하이난은 최근 IASC 인증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2009년 6월 IASC 인증팀을 결성하고 인증을 위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우선 IASC 인증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인증 절차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IASC 멤버십) 알로콥 하이난은 8월에 멤버십 신청을 완료하고 IASC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2단계(시설 인증) 알로콥 하이난은 IASC의 규정에 맞게 14개 분야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였다. 8월 말까지 IASC에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인증 절차는 2009년 10월이면 완료될 것이다. 3단계(제품 인증) 시설 인증이 완료되면, IASC 규정에 맞는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품과 관련 서류를 IASC에 제출할 것이다. 인증 과정은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Hainan Aloecorp is dedicated to get IASC certification recently. The IASC certificate work team was set up in the end of June, 2009 and the schedule with plan are executed strictly. We established a contact with certification coordinator firstly, and divided the certificate work into three phases according to their suggestion. Phase I IASC membership/Membership application was finished in August, 2009. Hainan Aloecorp is a formal member of IASC from now on. Phase II Facility Certification/We had prepared all of the materials in 14 fields according to IASC's requirement. All of these materials will be submitted to IASC in the end of Aug. and we estimate to close this certificate in Oct. 2009. Phase III Product Certification / After the facility certification closed, we will submit the products with paper materials to IASC for product certification according to IASC's requirement. We estimate to close it in Dec.

**2009년 에코넷 여름 바비큐 파티 2009 ECONET Summer BBQ!**



2009년 8월14일 에코넷은 레이시 캠퍼스에서 여름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정오에서 3시까지 모든 사무실 임직원은 업무를 중단하고 게임과 식사, 교제, 특히 닌텐도 위, 록 밴드 게임을 즐겼다. 전문 마사지사인 현장 마사지 덕에 직원들은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저메인 해리스가 갈비, 야채 버거, 햄버거, 바비큐 치킨, 핫도그, 삶은 콩, 마카로니 샐러드, 포테이토 칩, 오터 팝스, 수박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레이시의 에코넷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껏 즐기며 에코넷 웨이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①레이시의 모든 에코넷 직원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즐겼다. All Lacey Employees came together for good food, games, and fun.  
②셰릴 파켓과 디나 포스파실의 아들 크리스티안이 닌텐도 위의 록밴드 게임을 하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Cheryl Paquet and Deanna Pospisil's son, Christian, rocked out a few tunes while playing the Nintendo Wii's Rockband Game.  
③툼 홀리한과 게일 메리트-스미스가 휴식시간에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Tom Hoolihan & Gail Merritt-Smith take a break to enjoy the festivities.  
④엘레나 잘렉, 사라 에디슨, 톰 트립, 에릭 밀러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Elena Jalek, Sarah Edison, Tom Tripp, & Eric Miller cheesing for the camera.

This year ECONET held the summer barbeque at our Lacey campus on August 14, 2009. The office closed from 12:00-3:00 PM which gave everyone from each company a chance to jointly participate in games, eating, socializing, and playing the Wii Rock Band! We had a massage therapist on site giving chair massages, allowing employees a few quiet minutes to rejuvenate themselves. Germaine Harris catered the barbequed lunch which included; Ribs, Veggie Burgers, Hamburgers, BBQ Chicken, Hot dogs, Baked Beans, Macaroni Salad, Chips, Otter Pops, and Watermelon. Fun was had by all! The barbeque allowed the ECONET Family here in Lacey a chance to come together and celebrate the ECONET WAY!



사고(社告)

● 에코넷웨이가 새로운 얼굴들에 의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넷웨이를 사랑하시는 에코네시안 여러분,  
에코넷의 이해증진과 참여의 장, 에코넷웨이가 새로운 얼굴들을 의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 이연호 회장님의 평전인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의 작가, 문선유 기획위원과 새로 에코넷웨이의 책임을 맡은 김민선 신임 편집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준비하는 새로운 에코넷웨이.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에코넷웨이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에코넷웨이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에코넷웨이 편집실

Announcement

● New ECONETWAY will come with new faces.

Dear readers of ECONETWAY,  
ECONETWAY has served ECONETians to develop mutual understanding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ECONET. We are now preparing a new edition of ECONETWAY with enthusiastic new staffs. Sunyu Moon, the writer of late chairman Lee, Yunho's biography, *He who grows stars on earth* has joined, and a new editor in chief Minsun Kim is being at the helm of making new ECONETWAY. Fresh faces to make a wholly new ECONETWAY! We expect your continuous support.

● Any idea and opinion will be welcomed.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with ECONETWAY.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Web-based community (Only EGGS user)**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ECONETWAY Editorial Office

지난호 정답



**Last issue's winners**

선물로 베라스파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Get a free Vera Spa hand cream for a prize!

**네이처텍** 이영숙

**유니젠** 김미란, 박중성, 손은정, 오미선, 이보수, 황보현정, 황지혜

**에코넷 미국 홀딩스** 데이브 프레드릭, 에리카 클레멘스, 하이드 한센

**알로콧 중국** 게리 쉐

**Naturetech** Yeongsuk Lee

**Unigen** Miran Kim, Jongseong Park, Eunjung Son, Misun Oh, Bosu Lee, Hyunjung Hwangbo, Jihye Hwang

**ECONET, Inc.** Dave Frederick, Erica Clemmens, Heidi Hansen

**Aloecorp.China** Gary Shen

# 에코넷 가족 ECONET Family

모든 어른을 부모같이, 모든 아이를 자식같이  
The Elderly as our Parents, All Children as our Own.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8865, Fax: +82-2-467-9988

**네이처텍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우: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eon,  
Jincheon-Gun, Chungbuk, 365-850, Korea  
Tel: +82-43-532-5144, Fax: +82-43-532-5328  
www.naturetech.co.kr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82-2-460-3100, Fax: +82-2-463-9162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우: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82-41-529-1510, Fax: +82-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Inc.  
ECONET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300, Fax: +1-360-413-9185

**유니젠 미국  
Unigen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200, Fax: +1-360 413-9135  
www.unigen.net

**유니베라 미국  
Univera Inc.**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500, Fax: +1-360-413-9150  
www.us.univera.com

**알로콧 미국  
Aloecorp USA (Headquarter)**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400, Fax: +1-360-413-9185  
www.aloecorp.com

**알로콧 미국 (생산)  
Unigen-Russia Inc.**  
6.5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1-956-262-2176, Fax : +1-956-262-8113

**알로콧 멕시코(생산)  
Aloecorp Mexico**  
Aloecorp de Mexico  
Carretera Tampico-Mante km 89  
Gonzalez, Tamaulipas, Mexico 89700  
Tel: +52-836-273-2146, Fax: +52-836-273-2146

**유니베라(캐나다)  
Univera Canada**  
290 Labrosse Ave.  
Point-Claire/Montreal  
Quebec, Canada H9R 6R6  
Tel: +1-514-426-2865, Fax: +1-514-693-3425  
www.univeracanada.com

**베라 리조트 (홍콩)  
Vera Resorts Limited (Hong Kong)**  
1203, 12/F., Bank of America Tower,  
12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Tel: +852-3904-3567, Fax: +852-3904-3568

**알로콧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만녕사무실/ Wanning Office/ 万宁办公室  
海南省萬寧市禮紀鎮茹新村 南洋蘆薈基地 郵編: 571529  
Hainan Aloecorp, Jiaxin Village,  
Liji Town, Wanning, Hainan, China, 571529  
Tel: +86-898-6258-5078, Fax: +86-898-6258-5018  
http://www.aloecorp.com.cn

**유니젠 러시아  
Unigen-Russia Co., Ltd.**  
Russia, Primorsky territory, Vladivostok,  
Prospect Kranogo Znamen 59, office 707  
Tel: +7-4232-30-2886, Fax: +7-4232-43-17-78



